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주국제관악제 현황 분석을 통한
교육적 가치 고찰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음악교육전공

황찬휘

2018년 2월

제주국제관악제 현황 분석을 통한
교육적 가치 고찰

지도교수 권수미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음악교육전공

황찬휘

2018년 2월

황 찬 휘 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민 경 훈 인

심 사 위 원 손 민 정 인

심 사 위 원 권 수 미 인

한 국 교 원 대 학 교 대 학 원

2018년 2월

목 차

논문 요약	vii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3.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6
4. 선행 연구의 고찰	7
II. 이론적 배경	10
1. 관악교육의 필요성과 의미	10
2. 제주국제관악제의 역사	14
III. 본 론	18
1. 제주국제관악제 프로그램 분석	18
가. 제주국제관악제의 개요	20
나. 제주국제관악제의 프로그램	25
2. 제주국제관악제 관계자 인터뷰(Interview)	77
가. 관계자 인터뷰	78
나. 인터뷰 결과 분석	88
IV. 결론 및 제언	92
1. 논의	92

2. 정리 및 제언	95
참고문헌	98
ABSTRACT	102



표 차례

〈표 1〉 프로그램 분석 자료 유형 및 미비자료	19
〈표 2〉 역대 제주국제관악제 규모	22
〈표 3〉 메인공연 프로그램 세부내용	26
〈표 4〉 부대행사 프로그램 세부내용	26
〈표 5〉 2017 제주국제관악제 프로그램 시행회차 합계	27
〈표 6〉 제주국제관악제 중장기 비전 및 목표	27
〈표 7〉 17개 프로그램 목록	29
〈표 8〉 1995 & 1997년 관악단 및 앙상블 공연 운영현황	30
〈표 9〉 1998년 관악단 및 앙상블 공연 운영현황	31
〈표 10〉 1999년 관악단 및 앙상블 공연 운영현황	31
〈표 11〉 2000 & 2001년 관악단 및 앙상블 공연 운영현황	32
〈표 12〉 2002년 관악단 및 앙상블 공연 운영현황	33
〈표 13〉 2003년 관악단 및 앙상블 공연 운영현황	33
〈표 14〉 2004년 관악단 및 앙상블 공연 운영현황	34
〈표 15〉 2005년 관악단 및 앙상블 공연 운영현황	35
〈표 16〉 2006년 관악단 및 앙상블 공연 운영현황	35
〈표 17〉 2007년 관악단 및 앙상블 공연 운영현황	36
〈표 18〉 2008년 관악단 및 앙상블 공연 운영현황	36
〈표 19〉 2009년 관악단 및 앙상블 공연 운영현황	38
〈표 20〉 2010년 관악단 및 앙상블 공연 운영현황	38
〈표 21〉 2011년 관악단 및 앙상블 공연 운영현황	39
〈표 22〉 2012년 관악단 및 앙상블 공연 운영현황	40
〈표 23〉 2013년 관악단 및 앙상블 공연 운영현황	41

<표 24> 2014년 관악단 및 앙상블 공연 운영현황	42
<표 25> 2015년 관악단 및 앙상블 공연 운영현황	43
<표 26> 2016년 관악단 및 앙상블 공연 운영현황	44
<표 27> 2017년 관악단 및 앙상블 공연 운영현황	45
<표 28> 관악단 및 앙상블 공연 중장기 비전 및 목표 해당여부 & 년도 별 운영현황	46
<표 29> 국제 U-13 관악 경연대회 중장기 비전 및 목표 해당여부 & 년도 별 운영여부	50
<표 30> 청소년 관악단의 날 중장기 비전 및 목표 해당여부 & 년도 별 운영여부	51
<표 31> 동호인 관악단의 날 중장기 비전 및 목표 해당여부 & 년도 별 운영여부	52
<표 32> 우리동네관악제 중장기 비전 및 목표 해당여부 & 연도 별 운영여부	54
<표 33> 밖거리음악회 중장기 비전 및 목표 해당여부 & 연도 별 운영여부	55
<표 34> 해녀문화 음악회 중장기 비전 및 목표 해당여부 & 연도 별 운영여부	56
<표 35> 교류음악회 중장기 비전 및 목표 해당여부 & 연도 별 운영여부	57
<표 36> 콩쿠르 중장기 비전 및 목표 해당여부 & 연도 별 운영여부	59
<표 37> 마스터클래스 중장기 비전 및 목표 해당여부 & 연도 별 운영여부	62

〈표 38〉 마칭/퍼레이드 중장기 비전 및 목표 해당여부 & 연도 별 운영여부	65
〈표 39〉 악기 전시 및 수리 중장기 비전 및 목표 해당여부 & 연도 별 운영여부	67
〈표 40〉 캠프 중장기 비전 및 목표 해당여부 & 연도 별 운영여부	69
〈표 41〉 강연/연수/세미나 중장기 비전 및 목표 해당여부 & 연도 별 운영여부	70
〈표 42〉 기타 프로그램 중장기 비전 및 목표 해당여부 & 연도 별 운영여부	71
〈표 43〉 제주국제관악제 프로그램 중장기 비전 및 목표 분석	72
〈표 44〉 제주국제관악제 프로그램 발전 및 변천과정 분석표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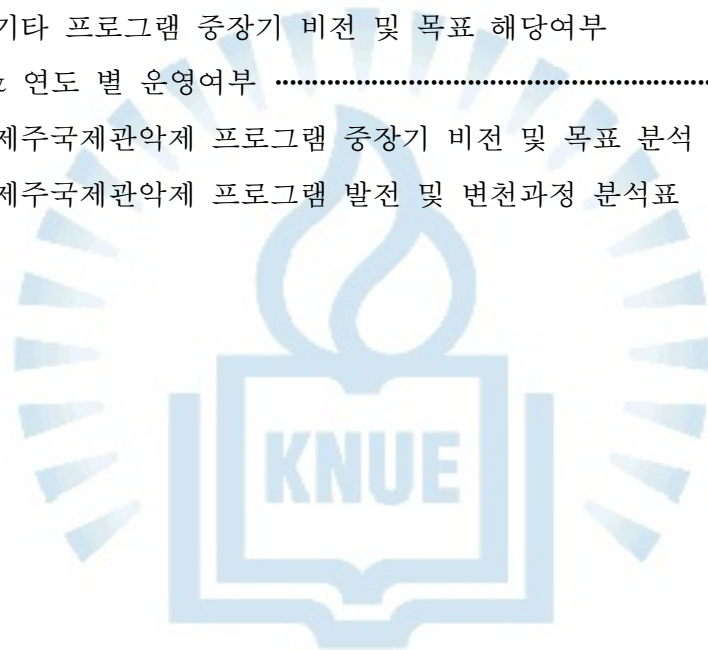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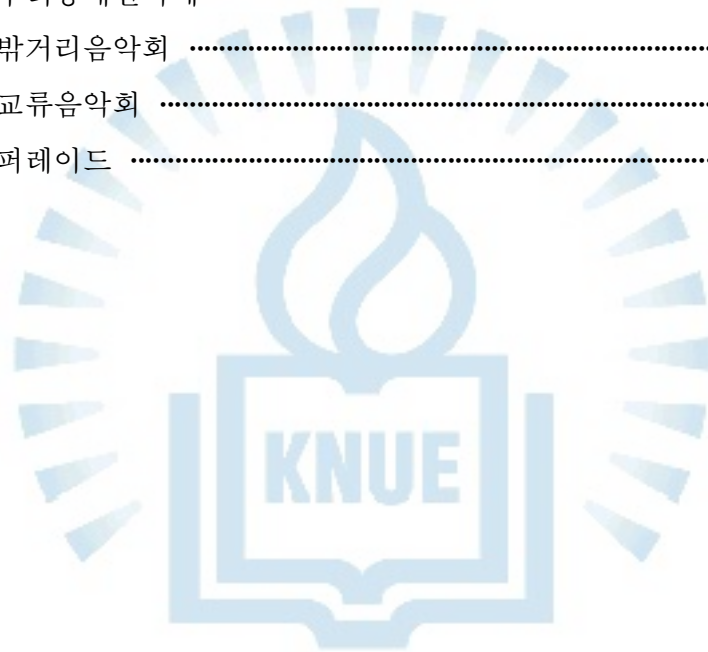


그림 차례

[그림 1] 제1회 제주국제관악제 브로셔	14
[그림 2] 제주국제관악제 개막공연	30
[그림 3] 국제 U-13 관악경연대회	48
[그림 4] 동호인관악단의 날	51
[그림 5] 우리동네관악제	53
[그림 6] 밖거리음악회	54
[그림 7] 교류음악회	56
[그림 8] 퍼레이드	63



논 문 요 약

제주국제관악제 현황 분석을 통한 교육적 가치 고찰

황 찬 휘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음악교육 전공
(지도교수 권 수 미)

우리나라 관악교육의 역사는 짧으나 관악연주와 관악교육의 장점을 살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크고 작은 관악음악제가 열리고 있다. 이들 음악제는 아직까지는 음악회나 경연의 목적이 앞서는 음악제들로 볼 수 있지만 이 중 제주국제관악제는 가장 큰 규모와 역사를 가지고 지난 22년간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주국제관악제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 교육적 기능에 대한 연구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찾아보았지만 이에 대한 선행연구가 미비한 상황으로 제주국제관악제의 교육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난 1995년부터 운영되어 오고 있는 제주국제관악제의 역사를 알아보고 제주국제관악제 자체평가회에서 제시한 중장기 비전 및 목표를 토대로 지난 22년간의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고찰함으로써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활동과 발전과정,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

원회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제주국제관악제가 지니고 있는 교육적 가치를 살펴보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용 및 방법으로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3차례 방문을 통한 자료수집, 프로그램 분석, 실제 프로그램 관찰, 관계자 면담을 진행하였다.

첫째, 제주국제관악제의 배경이 되는 연혁과 성장과정을 조사하기 위해 2016년 11월 25일 조직위원회 관계자와의 면담 및 포럼 참석을 시작으로 역대 프로그램 모음집, 리플렛 자료, 문헌자료, 제주국제관악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1995년부터 22년간 운영되어 온 프로그램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둘째, 2017년 8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 동안 제주도 전역에서 운영된 제22회 제주국제관악제 관람을 통하여 실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역대 제주국제관악제의 프로그램을 분석한 후 2017년 10월 17일 제주영상미디어센터 내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제주국제관악제 관계자들과 본 연구자가 조사한 프로그램 분석표를 토대로 의견을 나누고 제주국제관악제의 역사, 운영, 향후계획, 프로그램에 대한 인터뷰를 통하여 질적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난 22년간의 프로그램 분석결과 1995년부터 운영되어 온 제주국제관악제는 초창기 연주무대가 주를 이루던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여 교육적 의도를 지닌 프로그램들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교육적 의도를 가진 프로그램들이 언제부터 운영되어 왔는지 구체적인 파악은 어렵지만 제주국제관악제는 2014년부터 지속적인 포럼을 통하여 <첫째, 관악축제의 지속적 발전>, <둘째, 관광자원으로서의 예술콘텐츠 개발>, <셋째, 교류와 융합을 통한 예술발

전>, <넷째, 관악의 저변확대>, <다섯째, 전문성과 대중성 보급을 통한 교육적 역할증대> 이 5가지 중장기 비전 및 목표를 제시하며 운영되어 오고 있다. 이 중 <셋째, 교류와 융합을 통한 예술발전>, <넷째, 관악의 저변확대>, <다섯째, 전문성과 대중성 보급을 통한 교육적 역할증대> 이 3가지 비전은 음악 교육적 가치를 표방하는 비전으로 그 동안 간헐적으로 운영되어오던 제주국제관악제의 교육프로그램이 최근 들어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제주국제관악제는 참가 단체들간의 교류시간 제공을 통하여 자연스러운 정보제공과 문화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문화 소외지역에 대한 공연기회 확대와 초·중·고등학생, 동호인들에게 음악활동을 장려하며 자긍심 고취와 생활 속의 예술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이에 앞으로도 제주국제관악제의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관악인구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 이 논문은 2018년 2월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이 음악을 표현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도구는 음성이다. 음성을 이용한 가창표현은 리듬, 선율, 화성, 형식 등 음악의 모든 구성 요소와 악곡 형성의 원리를 학습하는데 가장 쉬운 길을 제공한다(박현정, 2010). 하지만 음역(range), 기능(technical skills), 음질(sound quality) 등의 측면에서 인간이(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 제약이 따른다(석문주, 최은식, 함희주, 권덕원. 2006, p. 170). 반면에 기악활동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제약을 벗어나 악기가 가지고 있는 넓은 음역, 기능(기교), 음색(음질) 등을 활용하여 표현의 범위를 크게 확장시켜줄 수 있다. “음악을 듣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연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J. L. Mursell, 1993)고 한 머셀의 주장과 같이 기악활동은 자신 내면의 생각이나 느낌, 감정을 악기로 표현함으로써 학습자의 음악적 표현 영역을 확장시켜주고 음악의 미적 체험과 자신의 감정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최근 음악교육에서 ‘음악하기(music making or doing music)’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악기라는 도구(instruments)를 통한 기악만의 특별한 방식은 음악하기의 경험 제공과 다른 방식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성취감을 이룰 수 있다. 청소년기의 변성기와 성격적인 이유로 표현이 어색한 학생들도 기악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음악적 의욕과 음악성을 기르는 긍정적인 방법이 되기도 한다. 기악활동을 통한 음악적 경험은 음악 감상 영역에 있어서도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이는 동일한 음악일지라도 기

악활동을 통해 음악을 경험한 감상자와 경험하지 못한 비감상자 간의 음악 감상 능력에 있어서 해석에 대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음악의 긍정적 영향 속에서 음악교과에서는 창의·인성교육을 목표로 학생들의 인성 교육과 전인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대학 진학에 있어서 스포츠뿐만 아니라 악기 연주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유소년기 시절부터 1인 1악기를 통한 기악학습으로 대학 진학과 여가 생활로서의 가치를 추구한다. 외국에서는 그만큼 음악교육의 가치와 중요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고 지속적인 악기 수련을 통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음악을 즐기고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기악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부의 정책 사업으로 예술중점학교 및 학생오케스트라, 학생음악경연대회 등의 다양한 문화예술정책을 통하여 기악교육을 권장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1인 1악기, 오케스트라, 관악합주 활동 등이 장려되고 있다.

이 중 관악기는 입으로 불어서 관속의 공기를 진동시켜 소리를 내는 악기를 뜻하며 이를 활용한 관악합주의 종류에는 취주악, 브라스 밴드(Brass Band), 관악 합주단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취주악은 관악기와 타악기로 구성된 것을 말하며 브라스 밴드는 관악기 중 금관악기를 주축으로 하고 타악기가 포함된 편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관악 합주단은 관악기와 타악기로 악기가 이루어지며 실내악적인 합주단을 의미한다(삼호출판사 편집국, 1994).

관악교육의 시작과 사회적 기능에 대하여 박봉선(1988)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서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관악은 서양음악의 도입과 함께 짧은 역사를 지녔지만,

대한민국 관악 역사의 출발점인 군악대를 비롯하여 각급 학교에서 활발한 관악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관악은 고도의 악기 합주로 인간에게 필요한 정서 순화는 물론, 각종 의식행사를 비롯하여 소인조 캄보 밴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집단 구성원의 사기 진작, 협동심 양양, 동일 목표를 향한 강인한 의지와 투철한 신념을 가지게 한다. 이러한 정신 요소를 수많은 대중에게 동시에 심어줄 수 있는 것은 관악의 장기임에 틀림없다(박봉선, 1988).

우리나라 관악교육의 역사는 짧으나 관악연주와 관악교육의 장점을 살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크고 작은 관악음악제가 열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주국제관악제, 대한민국관악제,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 춘천전국관악경연대회 등이 있으며 이들 대부분의 관악제 프로그램은 연주회나 경연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대한민국관악제는 전문연주자를 위한 음악회이며,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와 춘천전국관악경연대회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연대회이다. 반면에 제주국제관악제는 전문연주자들의 기량을 발휘하는 음악회와 아마추어 단체의 연주, 음악 동호인 음악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회 및 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교육적 요소를 갖춘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악의 저변확대와 관악음악 문화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국내의 관악음악제 중 지난 22년 동안 운영되어 온 제주국제관악제의 현황과 프로그램을 살펴봄으로써 제주국제관악제가 지니고 있는 교육적 가치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주국제관악제 자체평가회에서 제시한 중장기 비전 및 목표를 토대로 역대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관계자와 제주국제관악제의 역사, 프

로그램 구성과 현황, 운영, 발전 방안 및 추후 계획 등의 인터뷰를 실시하여 연주와 경연활동 이외에 제주국제관악제가 지니고 있는 교육적 가치를 고찰해 본다.

제주국제관악제의 간략한 연혁은 다음과 같다.

제주국제관악제는 1995년 창설되어 격년제로 약 20개국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며 여러나라의 밴드와 전문앙상블, 세계 유명 지휘자들에 의한 관악축제로 유망한 젊은 관악연주자들이 참가하는 콩쿠르가 동시에 개최되는 색다른 운영 방식으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제주국제관악제는 문화적 측면에서 그 역할과 성과를 살펴보면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음악을 연주함으로써 서로 다른 문화권의 문화교류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한 문화발전을 견인하는 문화통합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창작 활동을 통한 새로운 작품의 위촉과 출품된 창작곡의 연주 기회를 제공하여 창작과 행위라는 예술활동을 진작시키고 있다(김성호, 2009).

제주국제관악제를 통한 관악활동은 청소년들에게 자기표현의 기회와 다른 구성원들과의 호흡을 통해 협동심과 배려를 발휘하며 조화로운 인격형성으로 미래 지향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 또한 음악제를 통한 직접적인 연주경험이나 다양한 음악회, 음악감상 활동은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성취감을 획득할 수 있다. 이와같은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제주국제관악제의 프로그램으로는 2011년부터 시도된 초등학교 관악단의 교류 연주회와 U-13 Band Contest 등이 있지만 제주국제관악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매년 제주국제관악제 폐막 후 자체적인 포럼을 개최하여 평가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며 향후 발전방안에 대하여 모색

하고 있으며, 이 과정 중 교육적 영역으로 활동을 넓히기 위한 교육적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자는 문헌자료나 인터넷 검색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제주국제관악제에 대한 교육적 기능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았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교육적 기능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상황으로 제주국제관악제에 대한 교육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1995년부터 22년 동안 운영되어 오고 있는 제주국제관악제의 역사와 자체평가회에서 제시한 중장기 비전 및 목표를 토대로 역대 제주국제관악제의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조직위원회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봄으로써 관악교육의 저변 확대와 관악음악 문화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제주국제관악제의 교육적 가치 고찰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지난 22년간 운영되어 온 제주국제관악제 프로그램 분석을 통하여 교육활동 프로그램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를 제기하면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 제주국제관악제의 배경이 되는 연혁과 성장과정은 어떠한가?
- 지난 22년 동안 운영된 프로그램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프로그램의 발전과정은 어떠한가?
- 제주국제관악제의 프로그램 분석을 통하여 제주국제관악제가 지니고 있는 교육적 가치는 무엇인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95년부터 시작하여 2017년 제22회까지 운영되어 온 제주국제관악제의 연혁과 성장과정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제주국제관악제 역대 프로그램 북, 리플렛 자료, 문헌자료, 제주국제관악제 홈페이지, 조직위원회 관계자와의 면담 및 포럼(Forum) 참석 등을 통하여 1995년부터 2017년까지 운영된 프로그램을 살펴본 후 프로그램 구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둘째, 2017년 8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제주도 전역에서 운영된 제 22회 제주국제관악제 관람을 통하여 실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역대 제주국제관악제의 프로그램을 분석한 후 2017년 10월 17일 제주영상미디어센터 내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제주국제관악제 관계자들과 본 연구자가 조사한 프로그램 분석표를 토대로 의견을 나누고 제주국제관악제의 역사, 운영, 계획, 프로그램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3.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범위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국내에서 개최되고 있는 대표적인 관악제로는 대한민국관악제, 전국관악경연대회, 춘천전국관악경연대회, 제주국제관악제 등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국제관악제로 연구를 제한한다.

둘째, 제주국제관악제에서 경험 할 수 있는 음악적 그리고 음악 외적

활동에서 교육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고자 한다.

셋째, 2017년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사무실 이전 과정 중 제주국제관악제 프로그램 자료 일부를 분실하게 되어 프로그램 분석과정 중 미비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4. 선행 연구 분석

본 연구자는 선행 연구 분석을 위해 국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악제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페스티벌 사례를 살펴보았으나 교육적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성공요인, 활성화 및 발전방안, 문제점 등이 주로 연구되고 있다. 관악제를 넘어 음악제로 범위를 넓혀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지만 앞선 연구와 마찬가지로 교육적 관점에서의 깊이 있는 연구가 미비한 상황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음악제의 교육적 요소에 관한 간접적인 연구 자료와 축제(Festival)의 가치나 의의에 관련한 연구, 관악교육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자료를 선행 연구 자료로 설정하게 되었다.

음악제의 교육적 요소에 관하여 언급한 문보름(2013)은 ‘국제음악제 프로그램의 음악작품 경향 분석’에서 음악제를 통한 현장학습·체험학습이 음악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기회가 되며 이를 통하여 음악에 대한 애호심을 기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음악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소통의 장으로써 청소년들이 인간미와 정(情), 질서와 예절 등의 사회성을 배우기 적합하다고 밝혔다.

축제의 교육적 의의에 관련해서는 축제가 교육적 기능에 대해 간과하는 경향이 있더라도 많은 축제와 스페셜 이벤트는 주요한 목적으로써 학습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으며(Hustedde, 1993), 각 문화축제의 개최목적이나

성격은 다를 수 있지만 축제는 일반적으로 교육적 효과를 가진다 (Gitelson etc, 1995). 이러한 의미에서 축제의 교육적 의의를 김철원·이석호(2001)는 다음 세 가지 측면으로 보았다.

첫째, 축제의 주제 및 성격 자체가 교육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관람객이나 참가자에게 교육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둘째, 대부분의 문화축제는 본질적인 그 특성만으로도 관람객의 문화, 예술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감상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화축제는 미래의 잠재적인 문화 예술인 및 문화적 관람객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교육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축제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효과 등이 있다고 밝힌 김태관(2013)은 5가지의 효과 중 교육적 효과에 대하여 축제는 축제 자체의 특성만으로도 관람객의 문화예술 감상 및 자연에 대한 지식수준 증가의 기회를 제공하며, 미래의 잠재적인 문화관람객을 육성한다고 앞선 연구자 김철원·이석호(2001)와 동일한 견해를 보였다.

음악제나 축제의 교육적 의의와 요소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며 얻은 시사점은 음악제는 현장학습·체험학습의 장으로서 음악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자 사회성을 배우기에 적합한 매체이다. 또 축제는 축제 자체만으로도 교육적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축제의 참여는 잠재적인 문화 예술인 및 문화적 관람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악교육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박

가영(2014)은 ‘고등학교 관악 합주부 활동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전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학생들 중 관악합주 활동 경험이 있는 59명과 활동 경험이 없는 55명을 대상으로 사회성에 대한 설문지를 통해 결과를 도출해 냈다. 그리하여 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 보다 사회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활동 경험 기간이 오래된 학생일수록 사회성이 평균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신동선(2014)은 ‘청소년의 윈드 오케스트라 활동이 학생들의 생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관악합주 활동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생활 태도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밝혀냈다.

민주식(2012)은 ‘고등학교 관악합주부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서 관악합주 교육의 필요성을 대중성과 친화력을 통한 협동심 고취, 단체생활을 통한 인간관계 형성, 건전한 취미활동으로 심신의 건전한 발달, 음악적 재능 개발 네 가지로 분류하며 관악합주는 단체의 활동으로써 다른 기악 활동 보다 학생들에게 양보와 협동심을 스스로 깨닫게 하므로 올바른 인성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며 포괄적인 음악 경험으로 음악적 재능과 끼를 일깨울 수 있다고 시사하였다.

관악교육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관악교육은 사회성 및 학생들의 긍정적인 생활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건전한 취미활동이 될 수 있으며 올바른 인성과 포괄적인 음악 경험 등 삶 전반에 있어서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II. 이론적 배경

1. 관악교육의 필요성과 의미

가. 관악교육의 필요성

인간은 원천적으로 음악에 대한 필연적 욕구를 지니고 있다. 누구나 음성을 통해 가창을 즐기고 부를 수 있는 능력을 타고 났으며, 이를 육성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음성을 통한 가창 뿐 아니라 악기라는 도구를 통한 연주나 악기의 소리를 감상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도 인간이 가진 음악적 본능이며, 이는 음악에 있어서 기악이 발달한 이유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기악활동은 악기를 통한 음악표현 활동으로써 음악적 개념을 형성할 수 있으며, 기악연주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악곡을 학습하는 과정 속에서 음악이 지니고 있는 미를 체득하고 자신의 감정, 정서 등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음악 학습영역 중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김기래, 2003). 학교 음악교육에 있어서 중요시 되어야 할 점은 학습자의 음악적 잠재능력을 교육을 통해 개발하고 육성함으로써 정서를 함양시키고 순화시켜 음악의 심미성을 체험하게 하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심적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 음악교육은 특정 음악 기술인 배출을 위한 기능연마의 장으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이며, 학생들이 삶 속에서 음악을 즐기며 음악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 입각하여 관악합

주 활동의 주된 역할은 세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기악연주 활동을 통한 음악적 생활을 내면화 시킴으로써 인격형성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학생 개개인은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다양하게 표현해 봄으로써 자아실현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으며 미적 감수성을 갖게 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의 미에 대한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으며 다른 구성원들과의 합주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객관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되고 협동심과 책임감을 형성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도 자기표현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다(권홍근, 2011).

둘째, 관악합주 활동의 또 다른 역할은 대내적 행사활동을 통하여 대중들과 함께 음악을 호흡하며 친밀감을 형성함으로써 밝고 건전한 사회조성에 보이지 않는 큰 힘을 발휘한다는 점이다. 교내외의 각종 대회나 문화 행사 등에서의 연주활동은 지역사회와 학교간의 융화와 단결 그리고 협동심을 고취시키며 음악에 대한 관심과 친근감을 형성시킨다. 또한, 악기에 대한 호감도를 높임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음악을 즐기며 생활화하는 측면이나 국가적 측면에서 나라 사랑의식 부양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윤용식, 2003).

셋째, 관악합주 활동은 우리나라 기악의 여러 영역 중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관악의 저변 확대와 관악 음악문화 보급에 기여함으로써 관악 인구의 확대와 재능 있는 관악 영재를 조기에 발굴하는 효과가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음악교육 형태를 살펴보면 최근에 가정에서 다양한 악기영역으로의 교육이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피아노 교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가창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관악은 다른 영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홀

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로 인해 우리나라의 관악은 다른 영역에 비하여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른 관악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우리나라 음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관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김용환, 2006).

나. 관악합주의 의미

악기라는 도구는 인간의 종교의식과 군대 신호 또는 의사전달, 예술적인 체험을 위해 예전부터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도구로 여겨져 왔다. 고대의 악기들은 오늘날 발굴되는 고대 유물이나 벽화, 여러 문헌 등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최초의 목관 악기인 플루트의 그림이 고대 이집트 멤피스 피라미드와 다른 여러 묘 등지에서 발견됨으로써 2000년이 넘는 역사의 발자취 동안 음악적 본능을 지니고 있음을 증명해준다.

이러한 점에서 관악합주 활동은 청소년들의 음악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표현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음악성을 계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활동이다. 관악합주 활동에서는 각종 다양한 연주를 위해 관악합주 지도교사와의 규칙적인 연습시간과 개인의 연주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훈련을 요구하는 등 관악합주 활동 구성원들에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보다 성숙한 관악 음악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들의 관악합주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관악합주 활동이 이루어지는 영역은 각종 학예나 문화행사에서의 연주와 특정 행사 지원을 위한 연주 활동이 있다. 전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연합 또는 단독 연주회 및 경연대회 참가가 있으며, 후자의 경우, 입학

식과 운동회 그리고 각종 경축일 기념행사 등에서 행사 진행에 필요한 연주곡 및 의식곡을 연주하는 것이다. 이 중 학예, 문예 행사에서의 연주 활동은 관악합주 구성원들에게 음악에 대한 보다 깊은 예술적 체험과 심미성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연주를 통한 성취감은 구성원들에게 안정감과 자신감을 갖게 해주며, 음악적 기능 향상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참여 유도과 노력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가치 있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행사나 연주 활동의 참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가치 외에도 관악합주 활동이 지닌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악기 연주를 통하여 보다 많은 음악 학습의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관악합주 속에서의 악기 연주는 악보 독보 능력 및 화음 만들기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 외에도 다른 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 음악 학습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음악적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수단 중의 하나이다. 또한, 이러한 기악 경험을 통해 청음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집중력 향상을 제공하기도 한다.

둘째, 관악합주라는 단체 활동을 통해 자주성과 협동심 배양할 수 있다. ‘경험이 가장 훌륭한 교사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구성원들은 자신이 연주하는 음악과 구성원 전체가 연주하는 합주 음악을 청각을 통해 주의 깊게 들음으로써 보다 나은 연주기능과 음악적 이해를 키운다. 또한 관악합주에서는 개인이 다른 구성원의 음악에 의지하게 되고 함께 연주하는 음악의 창조적 과정 속에서 그들의 역할에 기대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점은 구성원들 간에 존중과 협동심을 길러주게 된다.

셋째, 관악합주 활동을 통한 연주는 학교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사회 문화발전에 기여한다. 앞서 언급한 관악합주 활동을 통한 다양한 연주활동

은 학교 내 행사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외적인 활동은 지역사회의 음악애호가들과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문화행사에 동참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관악합주 활동은 건전한 여가활동 수단으로써 심신 발달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음악분야의 영재를 계발하여 조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한다는 점 역시 관악합주 활동의 존재 가치라 할 수 있다.

2. 제주국제관악제의 역사



[그림 1] 제1회 제주국제관악제 브로셔

제주도에서 관악의 출발점은 일제치하 시대의 일본의 교육제도가 완성되었던 1930년대 중반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교육정책으로 인하여 몇 개에 불과했던 보통학교가 1930년 중반에 20여 개로 늘어났지만 학교에서 하는 관악대의 활동은 일본군의 필요에 따라 더 용이하게 쓰려는 수단에 불과했다(제주도지 편집 위원회, 1982). 1930년대 중반 이후 1945년 8·15해방 때까지 여러 소학교에서의 관악대 활동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마을에서의 신호, 학교 등하교 시 집단신호와 행진 그리고 훈

런 등에 활용하는 정도였다. 이러한 가운데 1942년 설립된 애월보통학교 관악대가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8·15 해방과 함께 미군 주둔이 이루어지고 일제 말기부터 이루어졌던 보통학교 중심의 관악대 활동은 1947년, 제주중학교에서 제주도 최초 9인조 중등학교 관악대 창설에 이르게 된다. 이 후 제주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회사였던 동척회사(제주주정회사의 전신)의 직원들로 구성된 소규모의 직장 관악대가 창설되었고, 1949년, 제주도 내 유일한 고등교육기관이었던 제주농업고등학교에서 관악대가 창설되고 활발한 활동함으로써 음악의 불모지라 할 수 있던 제주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50년, 한국 전쟁 발발은 제주 음악 역사에 또 다른 변화를 일으켰다. 그것은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음악계 인사들이 제주로 피난을 오게 되면서, 그 동안 경험이 부족했던 제주도민들에게 음악에 대한 가치관 형성과 함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제주 음악의 발전을 도모하게 된 것이다. 이들 음악인에는 이성삼(합창, 지휘), 계정식(바이올린), 박재훈(작곡, 신성여자중학교 교가 작곡), 김금환(성악, 오현고등학교 피난분교 음악교사로 ‘춘향전’을 공연), 이성재(제주중학교 교사) 등이다(부만근, 1982). 특히 1952년 9월, 제주 주둔 미군 CAC 부사령관으로 취임하게 된 길버트(Charles E. Gilbert) 소령은 제주에서의 복무기간 동안 오현고등학교, 제주농업고등학교, 제주중학교, 한국보육원, 구세군보육원 등에 악기 및 악보를 기증하고 직접 지도에 나선 제주 관악의 은인이라 할 수 있다. 제1훈련소 군악대장이었던 강문봉 대위도 각 학교 관악대를 적극적으로 지도함으로써 관악대의 수준이 날로 향상되었다. 그러나 종전 후 사회가 안정됨에 따라 군악대와 경찰악대가 철수하면서 오현고등학교 관악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 악대는 활동을 중단하게 된다(제주시, 2004).

1962년, 한국음악협회 제주도지회가 결성되고 점차적으로 활동의 폭을 넓혀가게 되면서 제주예술제와 한라문화제(현재, 탐라문화제)에 해마다 참여하여 제주 음악의 수준을 높여 나갔다. 1960년대 중반, 남제주군 서귀읍을 중심으로 소수의 관악대가 창설되었고, 1964년, 효돈중학교에서 12인조 관악대를 창설하였으며, 1966년, 서귀중학교 10인조 관악대, 1967년, 세화고등학교 20인조 관악대, 1968년, 제주여자고등학교 관악대가 창설되는 등 활발한 관악대 활동이 이루어졌다.

1970년대에 접어들게 되면서 제주 출신 음악인들이 현저하게 배출되었으며, 국내의 저명 음악인과 단체들을 초청하여 연주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또한, 학교 음악을 중심으로 예술제 형식의 음악회와 경연대회가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1971년, 제주제일고등학교 교악대 창설을 시작으로 제주상업고등학교와 남주고등학교 및 영진보육원 등에 관악대가 창설되었으며, 1973년, 한국 관악대 지도자회 결성은 우리나라 관악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가져다주게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악기의 노후와 지도자 빈곤 현상을 시작으로 관악대에 대한 학교 측의 지속적인 지원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주여자중학교를 포함한 7개교의 관악대 운영이 중단되거나 해체되었다.

1981년, 제주대 음악교육과 설립과 1988년 제주도 문예회관의 개관은 제주의 음악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1982년 약 40여명의 직장인과 학생으로 구성 된 탐라관악합주단이 창단되고, 같은 해 대정고등학교 교악대, 1983년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교악대, 1986년 대기고등학교 교악대, 1987년 남녕고등학교 교악대 등이 창설되었다. 특히, 여러 단체들 중 탐라관악합주단은 1985년 제주시립합주단, 1987년 제주시립교향악단으로 개칭하게 됨으로써 현재 제주도를 대표하는 연주

단체의 모체가 되었다. 1984년에 개최된 제13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제주도 역사 이래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된 체육행사로 연합관악대가 이 행사의 개최식과 폐회식 진행을 담당하였다. 연합관악대의 운영은 이 행사를 계기로 제주 관악활동의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다.

제주도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관악 뿐만 아니라 음악활동의 양상에서도 새로운 모습을 나타나게 되는데 제주관광대학과 한라대학의 음악관련 학과 신설을 시작으로 대학의 음악관련 학과에서 배출된 음악인들의 다양한 활동과 신설 연주 단체들의 창단 및 활동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1992년에는 한국관악협회에서 주관하는 전국관악제가 대한민국관악제로 개칭되어 제주도에서 개최하게 되었는데 이는 제주도에서 열린 최초의 전국 규모의 관악축제 행사였다.

대한민국관악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 여러 해에 걸쳐 열린 제주관악제의 성공적인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1994년, 일본의 하마마쓰에서 개최된 제8회 아시아·태평양관악제에 제주연합관악대가 참가하게 된다. 이 때, 다른 관악단체들과의 교류 속에서 관악에 대한 정보 교환 과정을 통해 국제적인 관악축제를 제주에서 개최하는 구상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1995년 제주국제관악제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Ⅲ. 본 론

본 장에서는 지난 22년간 운영되어 온 제주국제관악제의 프로그램 분석과 조직위원회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제주국제관악제가 지니고 있는 교육적 가치를 살펴본다. 프로그램 분석을 위해 첫째, 지난 1995년부터 22년 동안 운영되어 오고 있는 제주국제관악제 중 가장 최근에 운영된 2017년 제22회 제주국제관악제 29개 프로그램을 본 연구에 맞추어 17개로 재정리하였다. 둘째, 재정리 된 17개 프로그램을 리플렛 자료, 프로그램 북, 제주국제관악제 홈페이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지난 22년간의 프로그램 발전 및 변천과정을 분석하였다. 셋째, 2017년 제22회 제주국제관악제 관람을 통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넷째, 17개 프로그램을 제주국제관악제 자체평가회에서 제시한 5가지 중장기 비전 및 목표에 맞추어 해당여부를 분석하였다.

프로그램 분석 이후 본 연구자가 조사한 프로그램 분석표를 토대로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관계자와 의견을 나누고 제주국제관악제의 역사, 운영 및 현황, 향후계획, 프로그램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1. 제주국제관악제 프로그램 분석

지난 22년 동안의 제주국제관악제 프로그램 분석을 위하여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관계자로부터 1995년부터 2017년까지의 프로그램 북, 리플렛, 포럼, 자체평가회 자료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2017년,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자료 분실 및 위치 파악 불가로 인하여 22년 동안의 자료를 모두 입수하지는 못하였다.

다음은 프로그램 분석을 위한 자료유형 및 미비 된 자료이다.

〈표 1〉 프로그램 분석 자료 유형 및 미비자료

년도	자료 유형	년도	자료 유형
1995	프로그램 북	2007	자료없음
1996	운영되지 않음	2008	자료없음
1997	리플렛	2009	프로그램 북
1998	프로그램 북	2010	프로그램 북
1999	리플렛	2011	프로그램 북
2000	자료없음	2012	프로그램 북
2001	프로그램 북	2013	프로그램 북
2002	프로그램 북	2014	포럼 자료
2003	자료없음	2015	프로그램 북
2004	프로그램 북	2016	포럼 자료, 홈페이지
2005	리플렛	2017	프로그램 북
2006	프로그램 북		

미비 된 자료와 제주국제관악제 관계자로부터 전달받은 일부자료 중 미흡한 부분을 입수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실시하였으나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없거나 부족하였으며, 제주국제관악제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도 자료가 부족하거나 자료들 간의 차이점이 나타났다.

제주국제관악제는 국내 3대 국제음악제¹⁾ 중 하나로써 2017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와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관

1) 국내 3대 국제음악제로 제주국제관악제, 대관령국제음악제, 통영국제음악제가 개최되고 있다. 대관령국제음악제는 매년 7~8월 강원문화재단 주최로 강원도 대관령에서 세계적인 전문 연주자들의 연주와 함께 음악도들이 지도받을 수 있는 축제이다. 통영국제음악제는 작곡가 윤이상을 추모하기 위해 경상남도 통영시에 서 개최되는 음악제로 음악회, 아카데미, 국제콩쿠르가 운영되고 있다.

악 분야로 특화 된 전문 관악축제로 운영되고 있다. 관악의 전문성과 대중성을 갖춘 음악제로 이미지를 구축하였으며 전 세계의 유명 관악인들과 관악작품을 소개한다. 제주국제관악제, 제주국제관악콩쿠르, 세미나 등의 부대 프로그램을 통해 관악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1995년 격년제로 시작하여 1997년까지 성공적인 개최 이후 1998년에는 전문앙상블, 관악독주 등 소규모의 앙상블 축제를 마련하면서 홀수 해는 밴드축제, 짝수 해는 앙상블축제로 이원화 하면서 ‘관악의 예술성과 전문성, 대중성’을 확보하려는 제주국제관악제 특성의 다변화를 꾀하였다.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제주시와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가 공동주최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2007년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의 공동주최로 관·민간조직의 성공적인 축제 운영 협동 사례로 자리매김하였다.

가. 제주국제관악제 개요

22년의 역사를 지닌 제주국제관악제는 국내를 대표하는 국제음악제 중 하나로서 가장 최근에 운영된 2017년 제주국제관악제의 구체적인 행사명, 기간, 장소, 참가규모, 주최, 후원은 다음과 같다.

▷ 행사명 : 2017 제22회 제주국제관악제 및 제12회 제주국제관악콩쿠르

▷ 기 간 : 2017년 8월 8일(화) ~ 8월 16일(수) 총 9일간

▷ 장 소

< 실내 >

제주문예회관, 서귀포 예술의 전당, 제주아트센터,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KBS 제주총국, 동부 종합 사회복지관, 꿈차롱 작은 도서관, 서귀포 고등학교 체육관, 신촌문화회관, 선흘체육관, 연동 설문대 어린이 도서관, 제주도립미술관, 교래리 제주돌문화공원, 제주해녀박물관, 제주시 기적의 도서관, 탐라교육원, 서귀포 착한서점 북타임, 저지리 탐라표류기, 저지리 파파사이트

< 실외 >

고산리자구내포구, 광지과물해변, 김영갑갤러리두모악, 대평리난드로공연장, 돌빛나예술학교동굴무대, 제주문예회관야외광장, 서귀포관광극장, 자구리문화예술공원, 제주목관아, 제주삼다공원, 제주해변공연장, 서귀포 천지연야외공연장, 추자도물양장, 한림공원, 퍼레이드(문예회관-광양사거리-남문사거리-칠성로-탑동)

▷ 참가규모

- 참여 예술가 인원 : 3,564

※ (제주국제관악제 국내 2,916, 국외 457 / 제주국제관악콩쿠르 국내 100, 국외 91)

- 참가국 수 : 20개국
- 참가지역수 : 12개 지역
- 관람객 수 : 약 45,000명

▷ 주최 :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 후원 :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다음은 역대 제주국제관악제의 운영 기간, 장소, 참가규모를 통한 발전
 과정이다.

〈표 2〉 역대 제주국제관악제 규모

년도	규모	
1995	기간	8/16 ~ 8/19 총 4일간
	장소	문예회관대극장, 제주해변공연장, 천지연폭포특설무대
	참가규모	1,501명
1997	기간	8/15 ~ 8/20 총 6일간
	장소	문예회관대극장, 함덕해수욕장야외무대, 제주해변공연장, 천지연폭포야외공연장
	참가규모	1,668명
1998	기간	8/15 ~ 8/20 총 6일간
	장소	문예회관대극장, 제주해변공연장, 천지연폭포야외공연장
	참가규모	700명
1999	기간	8/12~8/20 총 9일간
	장소	제주해변공연장, 제주도문예회관대극장, 절물휴향림야외무대, 천지연폭포야외공연장, 제주신영영화박물관, 한림공원
	참가규모	2,300명
2000	기간	자료없음
	장소	자료없음
	참가규모	993명
2001	기간	8/12 ~ 8/20 총 9일간
	장소	문예회관대극장, 제주해변공연장, 제주국제공항3층로비, 천지연폭포야외공연장
	참가규모	2,939명

2002	기간	8/12 ~ 8/20 총 9일간
	장소	문예회관대극장, 제주해변공연장, 한라아트홀대극장,
	참가규모	1,831명
2003	기간	자료없음
	장소	자료없음
	참가규모	2,639명
2004	기간	8/12 ~ 8/20 총 9일간
	장소	한라아트홀대극장, 제주해변공연장, 천지연폭포야외공연장
	참가규모	681명
2005	기간	8/12 ~ 8/20 총 9일간
	장소	문예회관대극장, 제주해변공연장, 천지연폭포야외공연장, 한라아트홀, 제주전원리조트
	참가규모	2,800명
2006	기간	8/12 ~ 8/20 총 9일간
	장소	문예회관대극장, 제주해변공연장, 한라아트홀, 천지연폭포야외공연장
	참가규모	1,000명
2007	기간	자료없음
	장소	자료없음
	참가규모	2,650명
2008	기간	자료없음
	장소	자료없음
	참가규모	1,380명
2009	기간	8/12 ~ 8/20 총 9일간
	장소	문예회관대극장, 제주해변공연장, 한라아트홀대극장, 천지연폭포야외공연장, 서귀포삼매봉공원, 한림체육관, 대흘초등학교, 고산초등학교, 하효 쇠소각, 효돈생활체육관, 중문 약천사, 탐라교육원, 절물자연휴양림
	참가규모	2,616명

2010	기간	8/12 ~ 8/20 총 9일간
	장소	제주해변공연장, 문예회관대극장, 천지연폭포야외공연장, 한라아트홀대극장, 제주아트센터, 아라뮤즈홀, 낙천리아홉굿마을 의자공원, 국립제주박물관, 한라초등학교, 한림공원, 절물자연휴양림, 약천사, 탐라교육원
	참가규모	1,849명
2011	기간	8/12 ~ 8/20 총 9일간
	장소	제주해변공연장, 문예회관대극장, 천지연폭포야외공 연장, 제주아트센터, 절물자연휴양림, 제주도립미술 관, 한림공원, 대흘초등학교, 탐라교육원, 김영갑갤 러리
	참가규모	2,396명
2012	기간	8/10 ~ 8/18 총 9일간
	장소	제주해변공연장, 문예회관대극장, 천지연폭포야외공연장, 제주아트센터, 한림공원, 제주도립미술관, 김영갑갤러리, 탐라교육원, 함덕초 선흘분교, 대흘초등학교, 이도초등학교, 금능으뜸원해변
	참가규모	1,724명
2013	기간	8/8 ~ 8/16 총 9일간
	장소	제주문예회관, 제주해변공연장, 천지연폭포야외공연장, 제주아트센터, 탐라교육원, 여미지식물원, 절물자연휴양림, 대흘초등학교, 한림공원, 금능으뜸원해변, 김영갑갤러리, 용눈이오름
	참가규모	3,000명
2014	기간	8/8 ~ 8/16 총 9일간
	장소	제주문예회관, 제주아트센터, 제주해변공연장, 천지연폭포야외공연장, 서귀포예술의전당, 어영소공원, 김영갑갤러리, 절물자연휴양림, 한림공원, 탐라교육원, 한라대학 강당, 벤처마루 국제회의실, 영상문화예술센터, 제주국제관악제 연습실, 회천리조트
	참가규모	2,500명

2015	기간	8/8 ~ 8/16 총 9일간
	장소	제주아트센터, 제주해변공연장, 탐라교육원, 이호테우해변, 한림공원, 어영공원, 서귀포예술의전당, 천지연폭포야외공연장, 서북전시관, 수산초등학교, 김영갑갤러리, 충북교육청제주교육원, 월드컵경기장, 제주국제관악제연습실
	참가규모	1,684명
2016	기간	8/8 ~ 8/16 총 9일간
	장소	제주문예회관, 제주해변공연장, 서귀포예술의전당, 천지연폭포야외공연장, 이중섭거리(구)관광극장, 제주학생문화원, 제주KBS홀, 한라아트홀, 어영소공원, 놀래올래, 신산공원 산책로, 탐라교육원, 한림공원, 제주도립미술관, 이호테우해변, 우도초·중학교, 충북교육청제주교육원, 월드컵경기장, 모슬포하모체육공원
	참가규모	2,624명

나. 제주국제관악제 프로그램

가장 최근에 운영된 제22회 제주국제관악제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15개의 메인공연 프로그램 95회, 14개의 부대행사 프로그램이 49회에 걸쳐 운영되었다. 메인공연 프로그램과 부대행사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 3>, <표 4>와 같다.

〈표 3〉 메인공연 프로그램 세부내용

	프로그램	회차
메인 공연	개막공연	1회
	관악단 및 앙상블 공연	30회
	중앙 아시아의 관악작품 조명	1회
	경축음악회	1회
	청소년 관악단의 날	1회
	우리동네관악제	8회
	제주해녀문화와 함께하는 제주국제관악제	4회
	국제 U-13 관악단 경연대회	1회
	대한민국 동호인 관악인의 날	1회
	서울에서 만나는 제주국제관악제	1회
	제주국제관악콩쿠르 (4개부문 예선 및 결선)	12회
	입상자 음악회	1회
	교류연주회	6회
	마칭쇼	1회
	밖거리 음악회	26회

〈표 4〉 부대행사 프로그램 세부내용

	프로그램	회차
부대 행사	마스터클래스	1회
	국제 교류의 밤	1회
	경연대회 피드백 세션	4회
	시가 퍼레이드	1회
	제주국제관악콩쿠르 시상식	1회
	악기 전시회	7회
	악기 수리	7회
	제주국제관악제 사진전	17회
	자체평가회	1회
	제주국제관악제 소망장(프리마켓)	3회
	연화연출(불꽃놀이)	1회
	팡파레 이벤트(리마인드 웨딩 등)	3회
	성공지원제 봉행	1회
	제주 관악의 뿌리찾기	1회

15개의 메인공연 프로그램과 14개의 부대행사 프로그램은 각각 95회, 49회로 총 144회가 운영되고 있다.

〈표 5〉 2017 제주국제관악제 프로그램 시행회차 합계

	프로그램 수	회차
메인공연	15개	95회
부대행사	14개	49회
합 계	29개	144회

2017 제22회 제주국제관악제 폐막 후 2017년 9월 7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자체평가회에서 제시한 제주국제관악제의 중장기 비전 및 목표는 다음과 같다.

〈표 6〉 제주국제관악제 중장기 비전 및 목표

제주국제관악제 중장기 비전 및 목표
가. 독창적이며 다채로운 관악축제의 지속적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악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예술장르와의 융합 ■ 제주의 유·무형 자원과 결합한 스토리텔링 연주 프로그램 개발 ■ 다양한 소재와 수준의 관악창작곡 제작 및 새로운 실험 무대 계획
나. 관광자원으로서의 지속적인 예술콘텐츠 및 이벤트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문화 스토리가 담긴 창작곡 위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곡 제작을 위한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획 ■ 관악이 어우러진 종합예술로서의 상설공연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의 유·무형 자원과의 결합을 통한 이야기 공모와 시나리오의 작품화 시도 ■ 관광자원으로서의 이벤트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국제관악제 브랜드 확립 및 캐릭터 계획 수립 - 관광이벤트 창출

다. 교류와 융합을 통한 예술발전 및 평화의 하모니

- 다채로운 교류 및 융합 시스템 구축
 - 다양한 형태의 교류 연주 기획
 - 축제안의 축제 계획

라. 지역과 함께하는 관악의 섬 실현 및 관악의 저변확대

- 지역과 함께하는 관악의 섬 실현
 - 제주의 다양한 문화장소에서 다양한 형태의 관악연주
 - 지역민들과의 융합 예술 프로그램 기획
 - 문화소외 지역으로 찾아가는 ‘우리동네관악제’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이벤트 운영
- 관악의 저변확대
 - 청소년 관악단의 날, 동호인 관악단의 날 등에 참가한 국내외 관악단체와 지역 연주단체(아마추어 단체 및 초·중·고 관악단 등)와의 교류

마. 관악의 전문성과 대중성의 조화와 교육적 역할 증대

- 관악곡, 합주교본 발간 및 보급
- 지역 학생들의 음악활동 증진 노력
(국제 U-13 관악단 경연대회, 청소년 관악단의 날, 교류음악회 등)
- 유명 음악인들의 마스터 클래스 개최
- 관악 아카데미의 기능 강화

본 장에서는 제주국제관악제 자체평가회에서 제시한 중장기 비전 및 목표를 토대로 1995년부터 지난 22년간 운영되어 온 제주국제관악제 프로그램을 분석하고자 한다. 가장 최근에 운영된 2017 제주국제관악제의 29개 프로그램을 17개로 재정리하고 이를 기준으로 삼아 1995년부터 운영되어 온 제주국제관악제의 프로그램의 발전 및 변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7개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표 7〉 17개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관악단 순회공연	전문연주자 초청연주
특별음악회	국제 U-13 관악경연대회
청소년 관악단의 날	동호인 관악단의 날
우리동네 관악제	박거리 음악회
콩쿠르	문화음악회
교류연주회	마스터클래스
마칭/퍼레이드	악기전시 및 수리
캠프	강연/세미나/연수
기타	

1) 메인 프로그램

관악단 및 앙상블 공연은 제주국제관악제 프로그램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자 1995년 시작 된 제주국제관악제의 기본 토대가 되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제주도내 주요 실내·외 공연장에서 국내·외 연주단체들의 연주로 관람객들에게 관악만의 매력과 다채로움을 선사하며 음악감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프로그램이다. 관악단 및 앙상블 공연은 관악단 순회공연, 전문연주자 초청연주, 특별음악회(개막공연, 관악 작품세계, 마에스트로 콘서트, 경축음악회), 기타 음악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림 2] 제주국제관악제 개막공연

1995년 제1회 제주국제관악제의 관악단 및 앙상블 공연은 4개국 18개 단체의 참여로 관악단 순회공연이 운영되었으며, 3명의 전문연주자 초청 연주(독주)가 이루어졌으나 개막공연, 관악 작품세계, 경축음악회는 운영되지 않았다. 1997년 7개국 22개 단체가 참여한 순회공연과 9명의 전문연주자 초청연주(독주)가 진행되었고, 개막공연은 1997년 리플렛을 살펴본 결과 개막식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연주에 대한 기록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행사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관악 작품세계는 운영되지 않았으며, 경축음악회는 당시에 환영행사 ‘제주의 밤’이란 프로그램으로 8월 15일에 운영되었다.

<표 8> 1995 & 1997년 관악단 공연 운영현황

년도	관악단 순회공연	전문연주자 초청연주	특별음악회
1995	4개국 18개 단체	3명	없음
1997	7개국 22개 단체	9명	개막, 경축

1998년 제3회 대회부터는 격년제 운영방식을 벗어나 매년 개최하게 되는 기본구조가 결정되면서 홀수 해는 관악합주 위주로 구성되는 밴드축제, 짝수 해는 전문연주 위주로 구성되는 앙상블 축제로 운영하게 된다. 앙상블 축제의 첫 해인 1998년은 1개국(대한민국) 13개 관악단체로 순회공연이 이루어지고 2명의 독주와 금관5중주 1개 단체의 앙상블 공연으로 전문연주자 초청연주가 운영된다. 개막공연과 관악 작품세계, 경축음악회는 운영되지 않았다.

〈표 9〉 1998년 관악단 및 앙상블 공연 운영현황

년도	관악단 순회공연	전문연주자 초청 연주	특별음악회
1998	1개국 13개 단체 (앙상블 축제)	2명, 앙상블 1개팀	경축

1999년, 6개국 28개 관악단의 순회공연, 전문 연주자 10명의 협연무대가 운영되었으며, 개막공연은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작품세계는 처음으로 운영되게 된다. 초청연주자 중 세계 관악의 대표적 작곡가인 알프레트 리드(Alfred Reed)가 자신의 지휘아래 본인의 작품들로만 구성된 ‘알프레트 리드의 작품세계’를 제주페스티벌밴드와 함께 선보였다. 경축음악회는 8월 15일 ‘제주의 밤’ 환영행사로 운영되었다.

〈표 10〉 1999년 관악단 및 앙상블 공연 운영현황

년도	관악단 순회공연	전문연주자 초청 연주	특별음악회
1999	6개국 28개 단체 (밴드 축제)	10명	작품, 경축

2000년은 7개국 15개 단체의 참가로 관악단 순회공연이 운영되었으며, 전문연주자 초청연주, 개막공연, 작품세계, 경축음악회는 자료 부족으로 파악할 수 없었다. 2001년은 9개국 30개 단체의 참가로 관악단 순회공연이 이루어 졌으며 8개국 15명의 협연으로 전문연주자 초청연주회가 운영되었다. 개막공연은 프로그램 리플렛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으며, 1999년에 이어 알프렛 리더의 작품세계가 다른 프로그램 구성으로 다시 한 번 운영되었다. 경축음악회는 8월 15일 ‘제주의 밤’ 환영행사로 한국택전 선수단 시범과 재즈무용단 공연으로 운영되었으며 음악회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표 11〉 2000 & 2001년 관악단 및 앙상블 공연 운영현황

년도	관악단 순회공연	전문연주자 초청 연주	특별음악회
2000	7개국 15개 단체 (앙상블 축제)	자료없음	자료없음
2001	9개국 30개 단체 (밴드 축제)	15명	작품, 경축

2002년은 8개국 12개 전문앙상블 단체의 참여로 앙상블 순회공연이 운영되었으며, 2개국 5명과 국방부 국악대 타악팀이 초청연주자로 초대되어 작곡작품 발표, 협연, 지휘 등의 무대를 선보였다. 이 중 작품 발표에서 작곡가 박영근은 제주국제관악제 두 번째 위촉 작품 “제주민요 환상곡”을 제주페스티벌밴드 연주에 의해 세계초연하게 된다. 이 작품은 ‘오돌또기’, ‘해녀노래’, ‘서우제소리’ 3곡을 중심으로 ‘수제천’의 동기와 고려가요 ‘가시리’를 각 부분 사이에 삽입구로 첨가한 작품

이다. 개막공연은 8월 12일 프라하브라스앙상블(체코)와 피닉스파운데이션(독일)에 의해 연주되었으며, 작품세계는 운영되지 않았다. 경축음악회는 ‘제주의 밤’ 환영행사로 전통줄타기, 국방부 국악대 타악팀의 식전행사 그리고 제주페스티벌밴드의 연주회로 운영되었다.

〈표 12〉 2002년 관악단 및 앙상블 공연 운영현황

년도	관악단 순회공연	전문연주자 초청 연주	특별음악회
2002	8개국 12개 단체 (앙상블 축제)	5명, 1팀	개막, 경축

2003년은 5개국 22개 단체의 관악단 순회공연과 19명의 전문연주자 초청이 이루어졌다. (개막공연 자료없음) 관악 작품세계는 운영되지 않았으며 경축음악회는 제주페스티벌밴드와 예수한(Yeh Shu-Han/트럼펫/대만), 고성옥(대한민국/명창), 제주시립합창단, 서귀포시립합창단의 연주로 운영되었다.

〈표 13〉 2003년 관악단 및 앙상블 공연 운영현황

년도	관악단 순회공연	전문연주자 초청 연주	특별음악회
2003	5개국 22개 단체 (밴드 축제)	17명	자료없음

2004년은 제주국제관악제가 제13회 아시아·태평양관악제와 공동개최를 함으로써 이전까지 운영되어 왔던 관악제 보다 많은 관악단체들의 참가가 이루어지게 됐다. 제주국제관악제 9개국 12개 전문앙상블, 아시아·태평양관악제 6개국 38개 관악단이 참가하여 순회공연이 운영되었으며,

전문연주자 초청연주 프로그램은 별도로 있진 않으나 환영음악회(경축음악회)로 운영되는 ‘제주의 밤’에서 제주페스티벌밴드 연주에 맞춰 안희찬(트럼펫), 아담 프레이(Adam Frey/유포니움), 코리안트롬본 4중주, 김원정(소프라노) 등의 전문연주자 협연 무대가 운영되었다. 개막공연은 아틀랜틱 금관 5중주(미국), 서귀포시립관악단·인천연수구립관악단, 슈타트뮤직 필렌도르프(독일)의 연주로 운영되었으며 관악 작품세계는 운영되지 않았다.

〈표 14〉 2004년 관악단 및 앙상블 공연 운영현황

년도	관악단 순회공연	전문연주자 초청 연주	특별음악회
2004	〈제주〉 9개국 12개 단체 (앙상블 축제) 〈아·태〉 6개국 38개 단체	정확한 파악불가	개막, 경축

2005년 관악단 순회공연은 8개국 35개 관악단 및 앙상블로 운영되었으며 2005년 자료부족으로 인하여 제주국제관악제 홈페이지를 통한 초청연주자 13명의 명단은 확인했으나 연주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파악하기 어렵다. 개막공연은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경축음악회는 제주 춤연구회 특별공연 식전행사와 브라스앙상블비엔(스위스), 제주윈드오케스트라(제주페스티벌밴드 개명)의 연주로 ‘제주의 밤’ (환영음악회)이 운영되었다.

〈표 15〉 2005년 관악단 및 앙상블 공연 운영현황

년도	관악단 순회공연	전문연주자 초청 연주	특별음악회
2005	8개국 35개 단체 (밴드 축제)	정확한 파악불가	경축

2006년에는 6개국 13개 단체가 참여로 관악단 순회공연이 이루어졌으며 에릭 오비에르(Eric Aubier/트럼펫)와 단 루카스(Don Lucas/트롬본), 김대욱(테너), 김동언(바리톤)이 초청연주자로 경축음악회 무대에 올랐다. 개막공연은 게오르그솔티브라스앙상블(헝가리), 서귀포시립관악단·인천연수구립관악단의 연주로 운영되었으며 관악 작품세계는 제주국제관악제 운영기간이 아닌 앞선 3월 14일 한라아트홀에서 프랭크 티켈리(Frank Ticheli)의 지휘아래 제주윈드오케스트라가 ‘프랭크 티켈리의 작품세계’를 연주하였다.

〈표 16〉 2006년 관악단 및 앙상블 공연 운영현황

년도	관악단 순회공연	전문연주자 초청 연주	특별음악회
2006	6개국 13개 단체 (앙상블 축제)	3명	개막, 경축, 작품

2007년에는 5개국 28개 단체의 관악단 순회공연이 진행되었으며 전문연주자 초청연주는 경축음악회에서 스티븐 미드(Steven Mead/유포니움/미국), 안희찬(한국), 예수한 금관5중주(대만)로 파악된다. 개막공연의 정확한 정보는 파악이 어렵다. 경축음악회에서는 작곡가 다니엘 카니발리(Daniele Carnevali/이탈리아)의 2007년 제주국제관악제의 위촉작품 “한

라환상곡” 이 제주윈드오케스트라에 의해 연주되었다.

〈표 17〉 2007년 관악단 및 앙상블 공연 운영현황

년도	관악단 순회공연	전문연주자 초청 연주	특별음악회
2007	5개국 28개 단체 (밴드 축제)	2명, 1팀	경축

2008년에는 6개국 17개 단체가 관악단 순회공연에 참여하였으며 2008년 자료부족으로 인하여 전문연주자 초청연주, 개막공연의 정확한 정보 파악은 어렵다. 관악 작품세계는 제주국제관악제 개막 전 3월 11일 제주 문예회관에서 제주윈드오케스트라의 제6회 정기연주회를 통하여 ‘야콥드 한의 작품세계’가 연주되었으며 제국국제관악제 행사기간에는 ‘프랭크 티켈리의 작품세계’가 계명대학교 관악단에 의해 연주되었다. 경축음악회는 도립제주무용단의 식전행사와 함께 제주윈드오케스트라, 에릭 오비에르(트럼펫), 자끄 모저(트롬본), 박혜란·김유나(플루트)의 연주로 운영되었다. 2008년에는 특별음악회 프로그램에 추가적으로 신설된 ‘마에스트로 콘서트’가 첫 선을 보였다. 마에스트로 콘서트는 제주국제관악콩쿠르의 심사위원을 맡고 있는 관악계 거장들의 공연을 만나볼 수 있는 무대이다. 그러나 2008년 자료부족으로 인하여 마에스트로 콘서트 전문연주자들의 프로그램은 파악할 수 없었다.

〈표 18〉 2008년 관악단 및 앙상블 공연 운영현황

년도	관악단 순회공연	전문연주자 초청 연주	특별음악회
2008	6개국 17개 단체 (앙상블 축제)	자료없음	작품, 경축, 마에스트로

2009년 제주국제관악제는 9개국 32개 단체 관악단이 순회공연을 펼쳤으며 제주원드오케스트라와 예수한(Yeh Shu-Han/트럼펫)의 협연, philippe Langlet(지휘)의 육군군악대 지휘, 성신여자대학교 심포닉밴드와 Duan Fu-hsuan(튜바/대만)의 협연, 홍콩페스티벌 원드오케스트라와 자끄모저(Jacques Mauger/트롬본/프랑스)의 협연, 야콥 드 한(Jacob de Haan)의 해군군악대 지휘(야콥 드 한의 작품세계), 일신여자고등학교 심포닉밴드와 Gh cong(호른/중국)의 협연, 제주원드오케스트라와 Paratore Vincenz(트롬본/이탈리아)의 협연, 육군군악대와 Bastien Baومت(유포니움/프랑스)의 협연, 경원콘서트밴드와 Matyas Istvan Veer(베이스트롬본/헝가리)의 협연으로 이전 관악제들보다 많은 전문연주자 초청연주회가 운영되었다. 개막공연은 육군군악대와 독일 하비스백청소년관악단의 연주로 운영되었으며 관악작품의 세계는 제주국제관악제 개막 전 3월 28일 제주문예회관에서 ‘만프레드 슈나이더의 작품세계’가 제주원드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진행되었다. 이 연주는 작곡자가 직접 제주원드오케스트라를 지휘했던 이전 관악 작품세계와는 달리 작곡자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재독 음악가 윤중헌의 지휘로 공연되었다. 제주국제관악제 운영기간 동안에는 해군군악대가 ‘야콥 드 한의 작품세계’를 야콥 드 한(Jacob de Haan)의 지휘아래 연주하였다. 경축음악회 ‘제주의 밤’은 식전행사로 육군국악대(취타대)의 공연이 운영되었으며 제주원드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공연이 이루어졌다. 마에스트로 콘서트에서는 Duan Fu-hsuan(튜바/대만), 자끄모저(Jacques Mauger/트롬본/프랑스), 안희찬(트럼펫), 프랑스 데 옹(Francis de Jong/클라리넷/네덜란드)의 연주가 있었다.

〈표 19〉 2009년 관악단 및 앙상블 공연 운영현황

년도	관악단 순회공연	전문연주자 초청 연주	특별음악회
2009	9개국 32개 단체 (밴드 축제)	9명	개막, 작품, 경축, 마에스트로

2010년 제주국제관악제는 9개국 24개 단체로 순회공연이 운영되었으며, 개막공연은 다스블레흐 앙상블과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단의 무대로 운영되었다. 제주국제관악제 개막 전 2월 23일 제주문예회관에서 ‘Jan Van der Roost의 작품세계’를 선보였으며, 경축음악회는 환영음악회 ‘Viva Brass(관악만세)’라는 테마로 체스트넛브라스컴퍼니, 사운드인브라스, 제주윈드오케스트라와 전문연주자로 초청된 루드비크 알베르트(Ludewig Albert/마림바/벨기에)와 오승명(마림바/대한민국)의 협연 무대로 운영되었다. 마에스트 콘서트는 8월 16일 이석준(호른), 자끄모저(Jacques Mauger/트롬본/프랑스), 아담 프레이(Adam Frey/유포니움/미국), 롤랜드 쟈트팔리(Roland Szentpali/튜바/헝가리) 8월 17일 아르민 로진(Armin Rosin/트롬본/독일), 스티븐 미드(Steven Mead/유포니움/미국), 오이스텐 바드스비크(Øystein Baadsvik/튜바/노르웨이), 에릭 오비에르(Eric Aubier/트럼펫/프랑스)의 연주로 2회에 걸쳐 운영되며 모든 금관악기들의 독주 무대를 감상할 수 있었다.

〈표 20〉 2010년 관악단 및 앙상블 공연 운영현황

년도	관악단 순회공연	전문연주자 초청 연주	특별음악회
2010	9개국 24개 단체 (앙상블 축제)	2명	개막, 작품, 경축, 마에스트로

2011년은 8개국 26개 단체가 순회공연을 선보였으며 미라폰튜바콰르텟,

트럼펫과 마림바 듀오콘서트(C. Saunier/트럼펫, L. Albert/마림바), 유진 코포론(E. M. Corporon/지휘)의 초청 연주가 운영되었다. 개막공연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윈드오케스트라와 커밍업빅밴드(독일)의 연주 무대로 이루어졌으며, 관악 작품세계는 작곡가들의 작품을 조명하는 이전 프로그램과 달리 ‘타악기와 윈드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세계’로 개막 전 2월 28일에 운영되었다. 경축음악회는 2010년과 마찬가지로 환영음악회 ‘관악만세’라는 테마로 부산국립국악원과 제주윈드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운영되었으며, 2011년 제주국제관악제는 이전 관악제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폐막공연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이 공연은 초청 연주회 및 폐막공연으로 제주국제관악제 초청연주자로 참여한 세계적인 윈드심포니 지휘자 유진 코포론(E. M. Corporon/미국)의 지휘아래 야콥 드 한(J. d. Hann)이 작곡한 ‘제주창조의 여신 설문대 할망’이 세계초연 되었다. 야콥 드 한이 이 곡을 작곡한 동기는 다음과 같다.

처음에 제가 제주에 왔을 때 제주윈드오케스트라를 지휘하였는데, 그 때 제주의 여신에 대한 흥미로운 책과 제주의 전통 노래가 담긴 CD를 선물로 받았었습니다. 바로 그 CD에서 영주십경이라는 노래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곡은 설화적 인물인 설문대할망과 함께 작곡을 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2011).

〈표 21〉 2011년 관악단 및 앙상블 공연 운영현황

년도	관악단 순회공연	전문연주자 초청 연주	특별음악회
2011	8개국 26개 단체 (밴드 축제)	4명	개막, 작품, 경축

2012년 제주국제관악제부터는 홀수 해에 운영 되어오던 관악합주단 위주의 밴드축제와 짝수 해에 운영 되어오던 앙상블축제가 통합되어 운영되기 시작되었다. 7개국 26개 단체의 순회공연을 비롯하여 스페니쉬브라스 ‘루르-메탈스’, 아이올로스 브라스밴드, 반 데르 루스트(Jan Van der root/지휘)의 전문연주자 초청연주가 있었다. 개막공연은 울산대학교 심포닉밴드와 피닉스파운데이션(독일)의 연주로 운영되었으며, 제주국제관악제 개막 전 3월 10일 제주문예회관에서 ‘잭 스탬프의 작품세계’가 운영되었다. 매년 8월 15일에 운영되는 경축음악회는 ‘환영의 밤’이라는 테마로 초청연주자 얀 반 데르 루스트(Jan Van der Roost)의 지휘로 제주원드오케스트라 연주로 운영되었다. 마에스트로 콘서트는 오이스텐 바드스비크(Øystein Baadsvik/튜바/노르웨이), 프레디 존데르거(Fredi Sonderegger/베이스트롬본/스위스), 스티븐 미드(Steven Mead/유포니움/미국), 루드비크 알베르트(L. Albert/마림바)의 무대로 마련됐다.

〈표 22〉 2012년 관악단 및 앙상블 공연 운영현황

년도	관악단 순회공연	전문연주자 초청 연주	특별음악회
2012	7개국 26개 단체 (앙상블·밴드 축제 통합)	1명, 2팀	개막, 작품, 경축, 마에스트로

2013년에는 6개국 23개 단체의 참여로 순회공연이 운영되었으며 전문연주자 초청연주에서는 ‘다섯의 트럼펫 이야기’라는 테마로 트롬바마니아(프랑스)의 연주와 ‘앙상블의 밤’ 프로그램에서 디아파송 색소폰 콰르텟(대만)과 체스트넛 브라스 컴퍼니(미국)의 연주가 운영되었다. 개막

공연은 부산대학교 윈드오케스트라, 연수구립관악단, 제주대학교 윈드십 포니의 연주로 제주국제관악제의 시작을 알렸으며, ‘프랭크 티켈리의 작품세계’로 관악 작품세계가 운영되었다. 이 공연에서는 프랭크 티켈리가 제주국제관악제 위촉 작품으로 작곡한 ‘관악곡을 위한 제주민요’를 해군군악대의 연주에 맞춰 첫 선을 보였다. 매년 8월 15일에 진행되는 경축음악회에서는 테오 볼터(Theo Wolters)의 지휘로 제주윈드오케스트라 연주가 운영되었으며, 마에스트로 콘서트에서는 스티븐 미드(Steven Mead/유포니움/미국), 제임스 스멜서(James Smelser/호른/미국), 에릭 오비에르(Eric Aubier/트럼펫/프랑스), 야끄모저(Jacques Mauger/트롬본/프랑스), 스캇 하트만(Scott Hartman/트롬본/미국), 우나이 우레초(Unai Urrecho/트롬본/스페인)의 참여로 운영되었다.

〈표 23〉 2013년 관악단 및 앙상블 공연 운영현황

년도	관악단 순회공연	전문연주자 초청 연주	특별음악회
2013	6개국 23개 단체	3팀	개막, 작품, 경축, 마에스트로

2014년에는 지난 2004년과 마찬가지로 제18회 아시아·태평양 관악제와 제주국제관악제가 공동개최를 함으로써 제주국제관악제 7개국 25개 단체, 아시아·태평양 관악제 8개국 32개 단체가 참여하였다. 전문연주자 초청연주는 자료부족으로 인하여 파악하기 어려우며, 개막공연은 수원대학교 윈드오케스트라와 The MPO Wind Band의 연주로 운영되었다. 관악 작품세계는 ‘알프렛 리드의 작품세계’가 1999년과 2001년에 이어 세 번째로 조명되었다. 매년 8월 15일에 열리는 경축음악회는 아시아·

태평양 관악제(8/11 ~ 15) 공동개최로 인하여 아시아·태평양 관악제의 폐막공연으로 운영되었다. 아시아·태평양 관악제 연합관악단 주도아래 스티븐 미드(Steven Mead/유포니움/영국), 오이스텐 바드스비크(Oystein Baadsvik/튜바/노르웨이), 카자코프 Kazakov Zoranco/트럼펫/마케도니아), 한경미(소프라노), 김나영(국악·소리) 제주연합합창단, 서울아리랑합창단이 참여하였다. 마에스트로 콘서트는 8월 12일 아담 프레이(Adam Frey/유포니움/미국), 스티븐 미드(Steven Mead/유포니움/영국), 데이빗 프리드먼(David Friedman/타악기/미국), 조지 커란(George Curran/베이스트럼본/미국), 8월 13일 톨모드 플라텐(Tormod Flaten/유포니움/노르웨이), 오이스텐 바드스비크(Oystein Baadsvik/튜바/노르웨이), 리오 오우데리트(Leo Ouderits/베이스트럼본/벨기에), 베이스트럼본 콩쿠르 심사위원 앙상블의 연주로 2회 운영되었다.

〈표 24〉 2014년 관악단 및 앙상블 공연 운영현황

년도	관악단 순회공연	전문연주자 초청 연주	특별음악회
2014	〈제주〉 7개국 25개 단체 〈아·태〉 8개국 32개 단체	자료없음	개막, 작품, 아·태관악제 폐막공연, 마에스트로

2015년 제주국제관악제에서는 5개국 30개 단체의 참가로 순회공연이 운영되었으며, 전문연주자 초청연주는 Spanish Brass ‘Luur Metals’ (스페인), Brandt Brass(러시아), In Medias Brass(헝가리), 클라리넷앙상블 ‘서울24’의 연주로 운영되었다. 개막공연은 제주도립서귀포관악단과 도미

니끄 보다트(Dominique Bodart/트럼펫/벨기에), 자끄 모저(Jacques Mauger/트롬본/프랑스)의 협연무대, Brandt Brass(러시아)의 연주로 운영되었다. 관악 작품세계는 에릭 에와즌(Eric Ewazen)의 지휘아래 해군군악대의 연주로 ‘에릭 에와즌의 작품세계’가 운영되었으며, 경축음악회는 서울시립무용단과 푸른초장관악단의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초청연주자 예수한의 지휘로 제주윈드오케스트라와 안명주(플루트/대한민국), 에릭 오비에르(Eric Aubier/트럼펫/프랑스), 스티븐 미드(Steven Mead/유포니움/영국)의 협연, 인천서구소년소녀합창단, KBS제주방송총국어린이합창단, 제주연합합창단의 합동공연으로 운영되었다. 마에스트로 콘서트는 도미니끄 보다트(Dominique Bodart/트럼펫/벨기에), 스캇 하트만(Scott Hartman/트롬본/미국), 하비에 보넷(Javier Bonet/호른/스페인), 스티븐 미드(Steven Mead/유포니움/영국)의 연주로 운영되었다.

〈표 25〉 2015년 관악단 및 앙상블 공연 운영현황

년도	관악단 순회공연	전문연주자 초청 연주	특별음악회
2015	5개국 30개 단체	5명, 4팀	개막, 작품, 경축, 마에스트로

2016년에는 8개국 26개 단체의 순회공연이 운영되었으며, 전문연주자 초청연주는 제네바금관5중주(스위스), 뉴스트림색소폰4중주(미국), 메나저리금관5중주(일본), 지음지기브라스콰이어(대한민국), 오 브라스(벨기에)의 참가로 운영되었다. 이 중 메나저리 금관5중주 팀은 고창수 작곡의 제주국제관악제 위촉 작품인 ‘금관5중주를 위한 제주민요’ (계화타령, 너영나영, 발불리는소리)를 세계초연 하였다. 개막공연은 제주도립서귀포관악

단의 연주와 스티븐미드(Steven Mead/유포니움/영국), 안희찬·안석영(트럼펫), 정혜민(소프라노)의 협연무대, 제주도립제주합창단, 제주도립서귀포합창단, 제주해군군악대의 합동공연으로 운영되었다. 관악 작품세계는 이전 관악제들과 달리 제주국제관악제 운영기간 동안 ‘우종익의 작품세계’와 ‘길링햄의 작품세계’ 2회가 운영되었다. 경축음악회는 제주원드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라이오넬 자케로드(트럼펫/스위스)·안석영(트럼펫/대한민국), 김한백(대금), 오이스텐 바드스비크(Oystein Baadsvik/튜바/노르웨이)의 협연무대, 제주도립제주·서귀포연합합창단의 합동공연으로 운영되었다. 마에스트로 콘서트는 8월 9일 토르 플레이튼(Tormod Flaten/유포니움/노르웨이), 루드빅 알베르트·오승명(마림바), 제네바브라스퀼렛의 무대와 8월10일 텐손 폴 폴라드(베이스트롬본/미국), 리 란송(바순/중국), 오이스틴 바디스빅(튜바/노르웨이), 라이오넬 자케로드(트럼펫/스위스)·안석영(트럼펫/대한민국)의 무대로 2회 운영되었다.

〈표 26〉 2016년 관악단 및 앙상블 공연 운영현황

년도	관악단 순회공연	전문연주자 초청 연주	특별음악회
2016	8개국 26개 단체	4명, 5팀	개막, 작품, 경축, 마에스트로

2017년 제주국제관악제는 10개국 38개 단체 참여로 순회공연이 운영되었으며 전문연주자 초청연주는 자끄 모저(Jacques Mauger/트롬본/미국), 렉스 리차드슨(Rex Richardson/트럼펫/미국), 에릭 오비에르(Eric Aubier/트럼펫/프랑스), 스티븐 미드(Steven mead/유포니움/영국), 릴리안 뮈린(Lilian Meurin/유포니움/프랑스), Tsutomu Maruyama(호른/일본), 케이코

아베(Keiko Abe/마림바/일본), 김정택(마림바), 오승명(마림바), 김한백(대금)의 공연과 Spanish Brass Luur Metal(스페인), Sound INN Brass(오스트리아), Palencia Conservatory Brass Ensemble(스페인), Kazah State wind quintet(카자흐스탄), Keiko Abe Marimba Orchestra(일본), Yendo Quartet(미국), 카로스타악기앙상블(대한민국), 칼로스플루트앙상블(대한민국)의 전문앙상블 연주가 운영되었다. 개막공연은 제주도립서귀포관악단의 연주로 운영되었으며, 이 공연에서 데이비드 길링햄(David Gillingham/작곡/미국)의 서우제소리를 기반으로 한 ‘Jeju Memoir(제주의 추억)’이 세계 초연되었다. 관악 작품세계는 작곡가를 중심으로 한 이전 관악 작품세계와 달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앙아시아의 작품세계’로 운영되었다. 경축음악회는 제주원드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렉스 리차드슨(Rex Richardson/트럼펫/미국), 에릭 오비에르(Eric Aubier/트럼펫/프랑스), 김정택·오승명(타악기) 김한백(대금)의 협연무대와 제주도립제주, 서귀포합창단, 라이온스합창단의 합동공연이 운영되었다.

<표 27> 2017년 관악단 및 앙상블 공연 운영현황

년도	관악단 순회공연	전문연주자 초청 연주	특별음악회
2017	10개국 38개 단체	10명, 8팀	개막, 작품, 경축

제주국제관악제의 메인프로그램인 관악단 및 앙상블 공연은 1995년부터 제3회 제주국제관악제까지 중·고등학교 관악대와 대학교 원드오케스트라 위주로 참가하는 관악제로서 국제적 인지도가 높지 않았으나 ‘알프렛 리드의 작품세계’를 통하여 관악작품 조명을 시작한 1999년부터 본

격적인 국제화가 시작되었다. 국제화를 통한 참가국 및 참가단체, 세계적인 전문연주자들의 참여 증가는 양적인 성장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장하며 세계적인 작곡가의 관악작품 조명, 마에스트로 콘서트 같은 프로그램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또, 이를 통하여 제주국제관악제 참가 연주자와 관람객들에게 관악이라는 특정 장르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고 할 수 있다. 관악단 및 앙상블 공연에서 연주되는 제주국제관악제의 위촉작품은 제주도와 우리나라의 정서가 깃든 관악곡을 지속적으로 창작함으로써 관악작품의 생산성을 높이고 세계 속에 제주도와 우리나라를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표 28〉 관악단 및 앙상블 공연 중장기 비전 및 목표
& 년도 별 운영현황

중장기 비전 및 목표			
가. 독창적이며 다채로운 관악축제의 지속적 발전			
나. 관광자원으로서의 지속적인 예술콘텐츠 및 이벤트 창출			
다. 교류와 융합을 통한 예술발전 및 평화의 하모니			
라. 지역과 함께하는 관악의 섬 실현 및 관악의 저변확대			
마. 관악의 전문성과 대중성의 조화와 교육적 역할 증대			
	중장기 비전 및 목표 해당여부		
	가, 다, 라, 마	가, 마	가, 나, 다, 라, 마
년도	관악단 순회공연	전문연주자 초청 연주	특별음악회
2017	10개국 38개 단체	10명, 8팀	개막, 작품, 경축
2016	8개국 26개 단체	4명, 5팀	개막, 작품, 경축, 마에스트로
2015	5개국 30개 단체	5명, 4팀	개막, 작품, 경축, 마에스트로

2014	〈제주〉 7개국 25개 단체 〈아·태〉 8개국 32개 단체	자료없음	개막, 작품, 아·태관악제 폐막공연, 마에스트로
2013	6개국 23개 단체	3팀	개막, 작품, 경축, 마에스트로
2012	7개국 26개 단체 (양상블·밴드 축제 통합)	1명, 2팀	개막, 작품, 경축, 마에스트로
2011	8개국 26개 단체 (밴드 축제)	4명	개막, 작품, 경축
2010	9개국 24개 단체 (양상블 축제)	2명	개막, 작품, 경축, 마에스트로
2009	9개국 32개 단체 (밴드 축제)	9명	개막, 작품, 경축 마에스트로
2008	6개국 17개 단체 (양상블 축제)	자료없음	작품, 경축, 마에스트로
2007	5개국 28개 단체 (밴드 축제)	2명, 1팀	경축
2006	6개국 13개 단체 (양상블 축제)	3명	개막, 경축, 작품
2005	8개국 35개 단체 (밴드 축제)	정확한 파악불가	경축
2004	〈제주〉 9개국 12개 단체 (양상블 축제) 〈아·태〉 6개국 38개 단체	정확한 파악불가	개막, 경축
2003	5개국 22개 단체 (밴드 축제)	17명	자료없음
2002	8개국 12개 단체 (양상블 축제)	5명, 1팀	개막, 경축
2001	9개국 30개 단체 (밴드 축제)	15명	작품, 경축
2000	7개국 15개 단체 (양상블 축제)	자료없음	자료없음

1999	6개국 28개 단체 (밴드 축제)	10명	작품, 경축
1998	1개국 13개 단체 (양상블 축제)	3명	경축
1997	7개국 22개 단체	9명	개막, 경축
1995	4개국 18개 단체	3명	없음

2) 연령별 프로그램



[그림 3] 국제 U-13 관악경연대회

‘국제 U-13 관악경연대회’는 세계 여러나라의 유소년들이 관악 활동을 통한 생활 속에서 인성과 화합을 기를 수 있도록하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주국제관악제 경연대회 프로그램이다. 국제 U-13 관악 경연대회는 2011년부터 신설되어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지만 그 이전부터 운영된 초등학교 합주 경연대회가 발전된 프로그램이라 볼 수 있다.

초등학교 합주 경연대회부터 국제 U-13 관악 경연대회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제주도내 초등학교 관악단의 경연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운영

된 초등학교 합주 경연대회는 제주국제관악제 개막 전 부대 프로그램으로 2004년 7개 관악단, 2006년 6개 관악단, 2009년 5개 관악단, 2010년 6개 관악단, 2011년 5개 관악단, 2012년 6개 관악단 등 꾸준히 5~7개 관악단이 참가하였으며 총 10회에 걸쳐 2012년까지 운영되어 왔다. 2011년 신설된 국제 U-13 관악 경연대회와 2년간 같이 운영되어 왔으며 현재는 7회간 운영된 국제 U-13 관악 경연대회만이 공식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고 있다.

국제 U-13 관악 경연대회에는 2011년 3개국(대만, 대한민국, 중국) 5개 관악단, 2012년 2개국(대만, 대한민국) 2개 관악단, 2013년 2개국(중국, 대한민국) 5개 관악단, 2014년 3개국(중국, 대한민국, 홍콩) 5개 관악단, 2015년 1개국(대한민국) 4개 관악단, 2016년 2개국(대만, 대한민국) 7개 관악단, 2017년 2개국(대한민국, 홍콩) 9개 관악단이 참여하여 기량을 겨누었다. 특히 2015년(자료없음), 그리고 2016년 이문석 작곡의 Kid songs (한국동요 메들리 관악작품), 2017년 박성균 작곡의 해녀를 위촉 보급하여 외국곡이 아닌 대한민국의 정서가 담긴 작품이 연주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었다. 또, 2016년에는 TV녹화 방영(KCTV 제주/제주국제관악제 종료 후)을 통해 초등학교 관악단원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었다.

국제 U-13 관악 경연대회는 그 동안 전문연주단체 위주의 참여로 운영되어오던 제주국제관악제에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제주도내 경연대회에 머무르지 않고 국제무대로 나아가면서 한단계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 초등학교 관악단원들에게 음악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따른 각종 긍정적인 효과를 증대시켜 주었다고 볼 수 있으며, 국제 U-13 관악 경연대회의 출발점인 초등학교 관악단 경연대회를 시작으로 오래전에 활동이 중단되었던 제주도내 초등학교 관악단

이 재창단 되는 계기가 되어 매우 의미있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표 29〉 국제 U-13 관악 경연대회 중장기 비전 및 목표
& 년도 별 운영여부

중장기 비전 및 목표		담당여부
가. 독창적이며 다채로운 관악축제의 지속적 발전		
나. 관광자원으로서의 지속적인 예술콘텐츠 및 이벤트 창출		
다. 교류와 융합을 통한 예술발전 및 평화의 하모니		○
라. 지역과 함께하는 관악의 섬 실현 및 관악의 저변확대		○
마. 관악의 전문성과 대중성의 조화와 교육적 역할 증대		○
년도	운영여부	비고
2014 ~ 2017	○	국제 U-13 관악 경연대회
2013	○	제3회 국제 U-13 관악경연대회 초등 합주경연대회 없어짐
2012	○	제2회 국제 U-13 관악 경연대회 제10회 초등 합주 경연대회(7월)
2011	○	제1회 국제 U-13 관악 경연대회 제9회 초등 합주 경연대회(7월)
2003 ~ 2010	○	초등합주경연대회(7월)
1995 ~ 2002	×	-

‘청소년 관악단의 날’은 미래의 주역인 중·고등학교 관악단이 참가해 다양한 연주 활동 경험과 문화 예술, 관악의 발전에 위하며 인성교육과 연계한 교육적 역할을 목적으로 2017년 처음으로 시행된 프로그램이다. 국외 고등학교 1팀, 국내의 중학교 4팀, 고등학교 5팀, 시각장애 특수학교 1팀이 참가하였다.

〈표 30〉 청소년 관악단의 날 중장기 비전 및 목표 & 년도 별 운영여부

중장기 비전 및 목표 해당여부	해당여부
가. 독창적이며 다채로운 관악축제의 지속적 발전	
나. 관광자원으로서의 지속적인 예술콘텐츠 및 이벤트 창출	
다. 교유와 융합을 통한 예술발전 및 평화의 하모니	○
라. 지역과 함께하는 관악의 섬 실현 및 관악의 저변확대	○
마. 관악의 전문성과 대중성의 조화와 교육적 역할 증대	○
년도	운영여부
2017	○
1995 ~ 2016	×



[그림 4] 동호인관악단의 날

‘동호인 관악단의 날’은 생활 속에서 관악 활동을 통해 아름다움을 찾고 건강한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회 구성원이 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관악 동호인들에게 격조 높은 무대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2005년 격년제 실시를 계획으로 ‘동호인관악단 경연대회’로 출범하게 되었다. 2005년과 2007년 지정곡 ‘아리랑’과 자유곡 1곡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여 2009년 작곡가 Julius Fucik의 ‘Florentiner March’, 박수현 작곡의 ‘오돌또기 환상곡’, 자유곡 1곡, 2011년 ‘Florentiner March’, ‘오돌또기 환상곡’, 만프레드 슈나이더(Manfred Schuneider) 작곡 ‘제주교향곡’ 과 자유곡 1곡이 연주되었다. 2013년부터는 경연대회가 아닌 축제의 형식으로 변모하게 되어 지금의 ‘동호인 관악단의 날’로 프로그램명이 변경된다. 2015년부터는 격년제가 아닌 매년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2016년에는 색소폰 동호인들로만 구성된 색소폰 동호인의 날로 마스터클래스도 함께 진행되며 색다른 운영 보여주었다. 동호인 관악단의 날은 경연대회에서 축제의 형식으로 탈바꿈하며 경쟁관계 보다 소통의 장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관악 동호인들에게 자긍심 고취와 지속적인 관악 활동의 계기를 마련해 주며, 예술 활동의 저변확대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표 31> 동호인 관악단의 날 중장기 비전 및 목표 & 년도 별 운영여부

중장기 비전 및 목표		해당여부
가. 독창적이며 다채로운 관악축제의 지속적 발전		
나. 관광자원으로서의 지속적인 예술콘텐츠 및 이벤트 창출		
다. 교유와 융합을 통한 예술발전 및 평화의 하모니		○
라. 지역과 함께하는 관악의 섬 실현 및 관악의 저변확대		○
마. 관악의 전문성과 대중성의 조화와 교육적 역할 증대		
년도	운영여부	비고
2015 ~ 2017	○	-
2014	×	-
2013	○	‘동호인 관악단의 날’ 변경
2012	×	-
2011	○	제4회
2010	×	-
2009	○	제3회
2008	×	-

2007	○	제2회
2006	×	-
2005	○	제1회 동호인관악단 경연대회
1995 ~ 2004	×	-

3) 기타 프로그램



[그림 5] 우리동네관악제

‘우리동네 관악제’ 프로그램은 지역과 함께하는 관악의 섬 실현을 위해 제주도의 다양한 지역을 찾아가는 음악회로 관악의 선율과 아름다운 제주도 자연의 조화로운 하모니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제주국제관악제의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2009년 이전에도 ‘찾아가는’이라는 개념으로 지역의 학교 또는 도내 관광지, 공공시설을 공연장으로 삼아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주회를 꾸준히 진행하였던 경험을 발판삼아 ‘우리동네 관악제’라는 공

식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표 32〉 우리동네관악제 중장기 비전 및 목표 & 연도 별 운영여부

중장기 비전 및 목표	해당여부
가. 독창적이며 다채로운 관악축제의 지속적 발전	○
나. 관광자원으로서의 지속적인 예술콘텐츠 및 이벤트 창출	
다. 교류와 융합을 통한 예술발전 및 평화의 하모니	○
라. 지역과 함께하는 관악의 섬 실현 및 관악의 저변확대	○
마. 관악의 전문성과 대중성의 조화와 교육적 역할 증대	○
연도	운영여부
2009 ~ 2017	○
1995 ~ 2008	×



[그림 6] 밖거리음악회

‘밖거리 음악회’는 2017년부터 제주도의 해녀문화와 관악이 어우러지는 해녀문화 음악회와 신설된 프로그램으로 제주의 전통문화인 안거리, 밖거리 문화를 연주형태로 변형시켜 메인 연주장소가 아닌 제주도의 다양한 복합 문화공간(도서관, 미술관, 북카페, 전리카페 등)에서 대규모 관악단이 아닌 그 관악단 멤버들 혹은 제주의 관악 단체들이 참여하여 다

채로운 관악의 선율을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단순히 메인연주장소 이외의 곳에서의 공연이 아닌, 따로 공간을 내어 살면서도 함께하는 존중과 화합의 제주문화 ‘안거리, 밖거리’의 정신을 반영한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아기자기하며 소박하지만 큰 감동을 느낄 수 있으며 우리동네관악제 프로그램과 함께 제주도내 곳곳을 누비는 공연이 확대되어 적지 않은 호응을 이끌어 내었다. 밖거리 음악회는 어떠한 장소에서도 연주하기가 용이하다는 관악만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한 좋은 예로 볼 수 있으며 향후에도 그 확장성과 기획력이 발휘한다면 제주국제관악제만의 특징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표 33〉 밖거리음악회 중장기 비전 및 목표 & 연도 별 운영여부

중장기 비전 및 목표		해당여부
가. 독창적이며 다채로운 관악축제의 지속적 발전		○
나. 관광자원으로서의 지속적인 예술콘텐츠 및 이벤트 창출		
다. 교류와 융합을 통한 예술발전 및 평화의 하모니		
라. 지역과 함께하는 관악의 섬 실현 및 관악의 저변확대		○
마. 관악의 전문성과 대중성의 조화와 교육적 역할 증대		
연도	운영여부	
2017	○	
1995 ~ 2016	×	

‘해녀문화 음악회’는 밖거리음악회와 함께 2017년 신설된 프로그램으로 제주 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UNESCO Humanity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에 등재된 기념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제주 해녀와 외국 관악(양상블)팀의 제주민요 ‘해녀노래’, ‘너영나영’, ‘출가해녀노래’, ‘이어도사나’ 등의 합동 공연을 통해 외국에

제주시 고산리 해녀마을, 서귀포 대평리 해녀마을의 제주 해녀문화와 추자도와 가파도 섬을 소개하여 제주 문화자원과 융합을 통한 제주국제관악제의 새로운 콘텐츠로 발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표 34〉 해녀문화 음악회 중장기 비전 및 목표 & 연도 별 운영여부

중장기 비전 및 목표	해당여부
가. 독창적이며 다채로운 관악축제의 지속적 발전	○
나. 관광자원으로서의 지속적인 예술콘텐츠 및 이벤트 창출	○
다. 교류와 융합을 통한 예술발전 및 평화의 하모니	○
라. 지역과 함께하는 관악의 섬 실현 및 관악의 저변확대	○
마. 관악의 전문성과 대중성의 조화와 교육적 역할 증대	
연도	운영여부
2017	○
1995 ~ 2016	×



[그림 7] 교류음악회

교류음악회는 관악을 통한 소통의 장으로써 문화교류를 통해 인성을 함양하고 자존감을 키우며 문화와 화합의 선율을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2014년 제주국제관악제 프로그램에는 교류음악회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

지는 않지만 ‘관악으로 흐르는 한·독 청소년 예술교류’라는 테마로 일신여자고등학교관악단과 독일 작센주립청소년관악단의 연주가 운영됐다. 2015년에도 2014년처럼 교류음악회 타이틀은 붙어있지 않지만 독일 뮐렌도르프 청소년 관악단과 제주 남녕고등학교 관악단이 연합팀을 이루어 우리동네 관악제 등을 포함하여 총 5회의 합동연주를 펼쳤으며, 2016년에는 제주 삼양초등학교 관악단과 대만의 하이산초등학교 관악단이 합동공연을 펼쳤으며, 대한민국의 최남단 모슬포에서 제주 대정고등학교, Ningbo시립교향악단관악단(중국), 나라시 타카마도고교 관악단(일본) 3팀이 합동공연을 통해 3국의 우호를 증진하고 각 나라 문화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다. 2017년에는 서귀포고등학교와 판링 루테란 고등학교(홍콩), 광양초등학교와 굿 호프 초등학교(홍콩), 오현고등학교와 판링 루테란 고등학교(홍콩), 선홍푸른울림 브라스밴드(선홍분교)와 알리안스 구룡통 초등학교(홍콩) 등 총 6회의 교류음악회가 있었지만 연합공연으로 이루어진 회차가 없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표 35〉 교류음악회 중장기 비전 및 목표 & 연도 별 운영여부

중장기 비전 및 목표	해당여부
가. 독창적이며 다채로운 관악축제의 지속적 발전	
나. 관광자원으로서의 지속적인 예술콘텐츠 및 이벤트 창출	
다. 교류와 융합을 통한 예술발전 및 평화의 하모니	○
라. 지역과 함께하는 관악의 섬 실현 및 관악의 저변확대	○
마. 관악의 전문성과 대중성의 조화와 교육적 역할 증대	○
연도	운영여부
2014 ~ 2017	○
1995 ~ 2013	×

‘제주국제관악콩쿠르’ 프로그램은 젊은 관악인들을 발굴, 육성을 목표로 제주국제관악제와 함께 균형 있는 음악발전을 이루기 위해 2000년 처음 운영되었다. 격년제 운영을 계획으로 2000년 트럼펫, 호른, 트롬본(테너/베이스), 유포니움, 튜바, 금관5중주 6개 부문 국내 55명, 국외 30명이 참가하였으며, 2002년 6개 부문 국내 29명, 국외 67명, 2004년 6개 부문 국내 41명, 국외 58명이 참가하였다. 2006년부터는 그 동안 통합으로 운영되었던 트롬본 부문을 테너트롬본과 베이스트롬본으로 분리시켜 7개 부문으로 확대된다. 2006년 7개 부문 국내 28명, 국외 80명이 참가하였으며 2008년 7개 부문 국내 41명, 국외 142명이 참가하였다.

제주국제관악콩쿠르는 2009년 4월 유네스코 산하기구인 국제음악콩쿠르 세계연맹(World Federation of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s)에 가입되면서 세계 유일의 금관악기 전 부문이 운영되는 국제관악콩쿠르로 자리매김 하였다. 이 후 2010년, 7개 부문 국내 74명, 국외 202명 총 276명으로 참가자가 대폭 증가하였다. 2012년, 홀수 해에는 밴드축제, 짝수 해에는 앙상블 축제로 운영하던 제주국제관악제가 밴드축제와 앙상블축제의 통합구조로 변경되면서 콩쿠르도 7개 부문에서 타악기 부문을 추가한 8개 부문으로 운영하는 대신 매년 4개 부문으로 나누어 경연을 개최하는 구조로 변경된다. 2012년 베이스트롬본, 유포니움, 튜바, 타악기(신설) 4개 부문으로 운영되었으며(참가인원 자료없음), 2013년 트럼펫, 호른, 테너트롬본, 금관5중주 4개 부문으로 운영된다(참가인원 자료없음).

2014년 베이스트롬본, 유포니움, 튜바, 타악기 16개국 183명이 참가하였으며, 2015년 트럼펫, 호른, 테너트롬본, 금관5중주 4개 부문 국내 91명, 국외 99명이 참가하였다. 2016년에는 베이스트롬본, 유포니움, 튜바, 타악기 국내 56명, 국외 117명이 참가하였으며, 2017년 트럼펫, 호른, 테너

트롬본, 금관5중주 4개 부문 국내 100명, 국외 91명이 참가하였다. 2017년 케리터너(Kerry Turner/미국)의 제주국제관악제 위촉 작품으로 제주의 문화와 연관된 'Suite for Unaccompanied Horn'을 지정곡(호른부문)으로 하여 제주의 선율을 세계로 보급하였다.

제주국제관악콩쿠르 참가자 대부분은 합동캠프생활을 통해 여러 음악적 정보와 교류를 통해 우정을 나누는 기회를 가진다. 본 콩쿠르의 입상자들은 독일의 게반트하우스오케스트라(Gewandhaus Orchester), 노르웨이 오슬로필하모닉(Oslo Filharmonisk Selskap), 체코필하모닉(Czech Philharmonic Orchestra) 등 세계 정상급의 오케스트라에서 수석으로 활동, 전문연주자, 음악대학 교수 등 유명 연주자들을 배출하였다. 심사위원들 또한 세계 관악의 선두 주자이며 유명 콩쿠르에서 활약하는 등 역량이 대단하다. 제주국제관악콩쿠르는 2017년 결선무대와 입상자 음악회의 연주실황을 SNS와 인터넷 생중계로 최초시도 30,000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차후 콩쿠르에 참가하게 될 잠재적 참가자들의 관심을 유도하였다.

<표 36> 콩쿠르 중장기 비전 및 목표 & 연도 별 운영여부

중장기 비전 및 목표			해당여부
가. 독창적이며 다채로운 관악축제의 지속적 발전			○
나. 관광자원으로서의 지속적인 예술콘텐츠 및 이벤트 창출			○
다. 교류와 융합을 통한 예술발전 및 평화의 하모니			
라. 지역과 함께하는 관악의 섬 실현 및 관악의 저변확대			
마. 관악의 전문성과 대중성의 조화와 교육적 역할 증대			
연도	운영여부	부문	비고
2017	○	트럼펫, 호른, 테너트롬본, 금관5중주	국내 100, 국외 91

2016	○	베이스트롬본, 유포니움, 튜바, 타악기	국내 56, 국외 117
2015	○	트럼펫, 호른, 테너트롬본, 금관5중주	국내 91, 국외 99
2014	○	베이스트롬본, 유포니움, 튜바, 타악기	16개국 183명
2013	○	트럼펫, 호른, 테너트롬본, 금관5중주	자료없음
2012	○	베이스트롬본, 유포니움, 튜바, 타악기(신설)	자료없음
2011	×	-	-
2010	○	전 부문	국내 74, 국외 202
2009	×	-	-
2008	○	전 부문	국내 41, 국외 142
2007	×	-	-
2006	○	전 부문(7개 부문) ※ 2006년부터 테너트롬본과 베이스트롬본 분리	국내 28, 국외 80
2005	×	-	-
2004	○	전 부문	국내 41, 국외 58
2003	×	-	-
2002	○	전 부문	국내 29, 국외 67
2001	×	-	-
2000	○	전 부문(6개 부문)	국내 55, 국외 30
1995 ~ 1999	×	-	-

‘마스터클래스(Masterclass)’의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음악 분야에
서 유명한 전문가가 재능이 뛰어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업’이라 명시

되어 있다. 제주국제관악제의 마스터클래스는 1995년 트롬본(Armin Rosin/독일), 클라리넷(Walter Boeykens/벨기에), 타악기(박동욱/대한민국) 3개 부문을 시작으로 1997년 트롬본(Armin Rosin/독일), 타악기(박동욱/대한민국), 트럼펫(Yeh Shu han/대만), 색소폰(Tom De Vette/네덜란드), 클라리넷(Frans De Jong/프랑스), 호른(김영률/대한민국) 6개 부문, 1998년 색소폰(Toshihisa Ougushi/일본), 트롬본(Reinhard Nietert/독일), 금관5중주(Yeh Shu-han Brass Quintet) 3개 부문, 1999년 색소폰(Toshihisa Ougushi/일본), 트롬본(Reinhard Nietert/독일), 튜바(유성주/대한민국), 밴드클리닉(서현석/대한민국), 지휘법(Jaroslav Vodnansky/체코), 클라리넷(Frans De Jong/프랑스, Hideaki Iwai/일본) 2회, 트럼펫(Yeh Shu han/대만, 안희찬/대한민국) 2회 7개 부문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되어갔다. 1999년 프로그램 북에는 작품소개(Alfred reed/미국) 부문도 포함되어 있으나 본 연구자의 분석에서는 마스터클래스의 성향보다는 강연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포함하지 않았다.

2000년에는 마스터클래스의 운영이 시행되지 않았으며 2001년 트롬본(Jacques Mauger/프랑스, 이철웅/대한민국), 유포늄Adam Frey/미국, Toru Miura/일본), 트럼펫(Yeh Shu-han/대만, 안희찬/대한민국), 색소폰(Philippe Portejoie/프랑스, Jean Pennings/네덜란드) 2회, 클라리넷(Frans De Jong/네덜란드, 이종욱/대한민국) 2회, 지휘법(박은성/대한민국 3회) 3회, 튜바(Roland Szentpali/체코), 피아노(Jan Novotny/체코), 관악합주 기본지도의 실제(Akiyama Toshio/일본, 연주/일신여자고등학교 관악대)가 1회씩 총 9개 부문 16회가 운영되었다. 1999년과 마찬가지로 2001년 제주국제관악제 프로그램 북에서는 기초음향악에 대한 이해·관악기론·음악형식론(Alfred Reed/미국), 관악기의 역사·목관악기 및 금관악기 기초 지도법

(Akiyama Toshio/일본) 5개 부문도 마스터클래스로 기록되어 있지만 마스터클래스 보다는 강연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2002년에는 운영되지 않았으며, 2003년(자료없음), 2004년 ~ 2006년도 운영되지 않았다. 2007년 ~ 2008년(자료없음), 2009년에는 클라리넷(Francis De Jong/네덜란드)이 운영되었으며, 2010년 ~ 2014년 5년간 운영되지 않았다. 2015년 플루트(안명주/대한민국), 2016년에는 동호인관악단의 날에 참가한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색소폰(뉴 스트림 색소폰4중주), 2017년에는 마림바(Keiko Ave/일본) 마스터클래스가 운영되었다.

제주국제관악제 마스터클래스는 초창기에 관악음악 문화 보급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부문으로 점차적으로 비중을 높여 갔지만 짝수해에 운영되는 양상불 축제에서는 운영이 되지 않았던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보통의 마스터클래스는 초·중·고·대학생 음악전공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게 일반적이지만 2016년 제주국제관악제에서 아마추어 연주자라고 할 수 있는 동호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관악 동호인들에게 자긍심 고취와 지속적인 관악 활동의 계기를 마련해 주며, 예술 활동의 저변확대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표 37〉 마스터클래스 중장기 비전 및 목표
& 년도 별 운영여부 및 부문

중장기 비전 및 목표		해당여부
가. 독창적이며 다채로운 관악축제의 지속적 발전		
나. 관광자원으로서의 지속적인 예술콘텐츠 및 이벤트 창출		
다. 교류의 융합을 통한 예술발전 및 평화의 하모니		
라. 지역과 함께하는 관악의 섬 실현 및 관악의 저변확대		
마. 관악의 전문성과 대중성의 조화와 교육적 역할 증대		○
년도	운영여부	비고
2017	○	마림바

2016	○	색소폰
2015	○	플루트
2010 ~ 2014	×	-
2009	○	클라리넷
2007 ~ 2008	자료없음	-
2004 ~ 2006	×	-
2003	자료없음	-
2002	×	-
2001	○	지휘법 3회, 클라리넷 2회, 색소폰 2회, 트럼펫, 트롬본, 유포늄, 튜바, 피아노, 관악합주 기본지도의 실제
2000	×	-
1999	○	클라리넷 2회, 트럼펫 2회, 색소폰, 트롬본, 튜바, 지휘법, 밴드클리닉
1998	○	색소폰, 트롬본, 금관5중주
1997	○	클라리넷, 색소폰, 트럼펫, 트롬본, 호른, 타악기
1995	○	클라리넷, 트롬본, 타악기



[그림 8] 퍼레이드

‘마칭/퍼레이드’에서 마칭(Marching)은 관악 활동에 속하는 연주형태

로 행진을 뜻하며 연주기능과 신체적 표현을 이루는 음악활동이다. 퍼레이드(Parade)는 Street Show라고도 부르며, 축제에서 많은 사람이 시가를 화려하게 행진 또는 행렬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이옥(1991)은 마칭밴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마칭밴드는 단순히 연주를 하면서 행진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대형변환이나 단위 개개인의 신체적인 동작을 동반하며 마칭밴드 전체를 동적이며 입체적으로 구성하여 음악표현을 시각적으로 호소하고 즐겁게 보고 듣게하는 종합적인 예술이다(박이옥, 1991).

제주국제관악제의 마칭/퍼레이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1995년 구마모토공업고등학교 관악단(일본), 산요여자고등학교 바톤부(일본)의 마칭공연을 시작으로 1997년 베이징폴리테크닉대학교 부속중학교 Jin Fan Art Ensemble의 마칭공연, 1998년 ‘탐라의 정기(The Spirit of Tamra)’를 연주한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관악대의 마칭공연이 운영되었다. 제주국제관악제 축제기간의 매년 8월 15일에 운영되는 경축음악회(1997 ~ 2005년 제주의 밤, 2006 ~ 2009년 축하공연, 2010 ~ 2013년 환영음악회, 2015년부터 경축음악회로 프로그램 명 변경)의 식전행사로 1999년부터 2017년까지 경축 시가 퍼레이드(2000년 • 2003년 • 2007년 • 2008년 자료없음 / 2014년은 공동개최 된 제18회 아시아 • 태평양 관악제(8/11 ~ 15일) 폐막공연의 식전행사로 운영됨)가 꾸준히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의 마칭/퍼레이드 프로그램 운영을 살펴보면 2004년 제주국제관악제가 제13회 아시아태평양관악제(8/14 ~ 18일)와 공동개최를 하게 되면서 아시아 • 태평양 관악제 개막식에서 공군군악대 • 의장대, 슈타트뮤직 필렌도

르프(Stadtmusik Pfullendorf/독일), 육군군악대, Yatsushiro Shirayuri Gakuen High School Marching Band(일본)의 마칭공연이 운영되었다.

2006년에는 ‘세계평화, 젊음의 음악으로’라는 주제로 세계마칭쇼밴드 연맹(WAMSB)이 주최하는 제10회 세계마칭쇼밴드챔피언십 제주대회(World Championship For Marching Show Bands)가 제주국제관악제와 공동개최 되었다. 세계마칭쇼밴드챔피언십 대회는 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에서 청소년들의 탈선을 방지와 건전한 방향으로 인도하며 젊음의 에너지를 발산시켜 주기 위해 창립되었다. 1996년 캐나다 켈거리에서 첫 개최를 시작으로 런던, 시드니, 포츠담, 지바, 몬차, 본머스, 따우바페에서 차례로 개최되었다. 2006년 제주대회에서는 11개국 28개팀, 2,110명(경연팀 24개 팀 1,920명, 특별출연 4개 팀 190명)의 참가규모로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서는 이탈리아의 카를로 피롤라가 ‘오돌또기’ 등 제주 민요를 바탕으로 작곡한 ‘세계 평화를 위한 염원(Evocation For World Peace)’가 연주되기도 하였다.

〈표 38〉 마칭/퍼레이드 중장기 비전 및 목표 & 연도 별 운영여부

중장기 비전 및 목표		담당여부
가. 독창적이며 다채로운 관악축제의 지속적 발전		
나. 관광자원으로서의 지속적인 예술콘텐츠 및 이벤트 창출		
다. 교류와 융합을 통한 예술발전 및 평화의 하모니		○
라. 지역과 함께하는 관악의 섬 실현 및 관악의 저변확대		
마. 관악의 전문성과 대중성의 조화와 교육적 역할 증대		
년도	운영여부	비고
2017	○	경축 시가 퍼레이드
2016	○	경축 시가 퍼레이드
2015	○	경축 시가 퍼레이드

2014	○	경축 시가 퍼레이드 Taipei Municipal DUN HUA Junior High School Marching Band 마칭쇼
2013	○	경축 시가 퍼레이드
2012	○	경축 시가 퍼레이드
2011	○	경축 시가 퍼레이드
2010	○	경축 시가 퍼레이드
2009	○	경축 시가 퍼레이드
2008	자료없음	-
2007	자료없음	-
2006	○	경축 시가 퍼레이드 제10회 세계마칭쇼밴드챔피언십제주대회
2005	○	경축 시가 퍼레이드
2004	○	경축 시가 퍼레이드 제13회 아시아·태평양 관악제 개막식 마칭공연
2003	자료없음	-
2002	○	경축 시가 퍼레이드
2001	○	경축 시가 퍼레이드
2000	자료없음	-
1999	○	경축 시가 퍼레이드
1998	○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관악단
1997	○	베이징폴리테크닉대학교 부속중학교 Jin Fan Art Ensemble(중국)
1995	○	구마모토공업고등학교 관악단(일본), 산요여자고등학교 바톤부(일본)

‘악기 전시 및 수리’ 프로그램은 악기사들의 협찬을 통하여 운영되는 부대행사 프로그램이다. 년도 별 운영여부를 확인한 결과 1995 ~ 1999년까지는 운영되지 않았으며, 2001년도 자료에는 악기수리 프로그램이 운영된 사실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1999년과 2001년 사이의 2000년도 자료 미비로 인하여 악기 전시 및 수리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첫 운영 년도

를 파악할 수 없다. 2001년과 2002년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로비에서 전시를 제외한 무상 수리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2003년(자료없음), 2004년 악기수리 운영, 2005년 악기수리와 함께 처음으로 전시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2006년 악기 전시 및 수리, 2007 ~ 2008년(자료없음), 2009 ~ 2017년(2014년 제외) 올해까지 지속적인 악기전시 및 수리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오고 있다.

제주국제관악제 악기전시 및 수리 프로그램에서는 악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전공자가 아닌 일반인들에게는 고가의 악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라 할 수 있으며, 다른 악기와 달리 입술과 호흡기를 사용해야하는 관악기 특성으로 인한 위생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점으로 보인다.

〈표 39〉 악기 전시 및 수리 중장기 비전 및 목표 & 연도 별 운영여부

중장기 비전 및 목표		담당여부
가. 독창적이며 다채로운 관악축제의 지속적 발전		
나. 관광자원으로서의 지속적인 예술콘텐츠 및 이벤트 창출		
다. 교류와 융합을 통한 예술발전 및 평화의 하모니		
라. 지역과 함께하는 관악의 섬 실현 및 관악의 저변확대		
마. 관악의 전문성과 대중성의 조화와 교육적 역할 증대		○
년도	운영여부	비고
2015 ~ 2017	○	악기전시 및 수리
2014	자료없음	-
2009 ~ 2013	○	악기전시 및 수리
2007 ~ 2008	자료없음	-
2005 ~ 2006	○	악기전시 및 수리
2004	○	악기수리
2003	자료없음	-
2001 ~ 2002	○	악기수리
2000	자료없음	-
1995 ~ 1999	×	-

‘캠프’는 차세대 관악인들에게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통한 전문성 배양, 국제적 교류 기회 제공을 목표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제주국제관악제의 캠프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1995 ~ 1999년까지의 기간동안은 캠프가 운영되지 않았으며, 2000년(자료없음), 2001년 한국지휘자협회가 참여한 지휘자 캠프가 6일간(8/19~8/24) 운영되었다. 캠프기간 동안 기량수련을 통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음악학도들은 캠프의 마지막날 제주국제관악제의 특별행사로 마련된 신예지휘자 연주회를 통하여 제주문예회관대극장에서 제주시립교향악단과 함께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 2002년, 2003년(자료없음), 2004년을 거쳐 2005년에는 트롬본과 색소폰 2개 캠프가 8일간(8/9 ~ 8/16) 공동으로 운영되었다. 이 캠프에서는 초청연주자로 제주국제관악제에 참가한 전문연주자 야끄모저(Jacques Mauger/프랑스/트롬본)와 앤드류 덜키(Andrew Dahlke/색소폰)가 참여하여 음악학도들의 기량수련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

2007년에는 트롬본과 플룻 부문이 공동으로 운영되었으며, 2008년(자료없음), 2009년 8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전문연주자 윌프강 비플러(Wolfgang Wipfler/독일)와 김영률(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호른캠프가 운영되었다. 2010년과 2011년은 2년 연속적으로 루드비크 알베르트(Ludwig Albert/벨기에), 최경환(대한민국), 오승명(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운영된 타악기 캠프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운영된 오카리나 캠프가 있었다. 2012년을 넘어 2013년 다시 한 번 타악기 캠프가 운영되었으며, 2014년 제주국제관악제가 제18회 아시아·태평양관악제와 공동개최로 운영되면서 이전의 관악캠프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증가된 베이스트롬본 캠프가 운영되었다. 이 캠프에서는 George Curran(미국), Zachary Bond(미국), Martin Schippers(네덜란드), Javier Colomer(스페인), Qiao kun(중국),

Takumi Shinozaki(일본) 등 세계적인 전문연주자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2015년 호른 캠프를 마지막으로 현재까지는 운영되고 있지 않다(자료없음).

〈표 40〉 캠프 중장기 비전 및 목표 & 연도 별 운영여부

중장기 비전 및 목표		담당여부
가. 독창적이며 다채로운 관악축제의 지속적 발전		
나. 관광자원으로서의 지속적인 예술콘텐츠 및 이벤트 창출		
다. 교류와 융합을 통한 예술발전 및 평화의 하모니		○
라. 지역과 함께하는 관악의 섬 실현 및 관악의 저변확대		
마. 관악의 전문성과 대중성의 조화와 교육적 역할 증대		○
년도	운영여부	비고
2016 ~ 2017	×	-
2015	○	호른
2014	○	베이스트롬본
2013	○	타악기
2012	×	-
2011	○	타악기, 오카리나
2010	○	타악기, 오카리나
2009	○	호른
2008	자료없음	-
2007	○	트롬본, 플룻
2006	×	-
2005	○	트롬본, 색소폰
2004	×	-
2003	자료없음	-
2002	×	-
2001	○	지휘자
2000	자료없음	-
1995 ~ 1999	×	-

‘강연/연수/세미나’ 프로그램은 정보제공, 교육훈련, 토론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초창기 관악단 공연의 비중이 높았던 1995 ~

1999년(2000년 자료없음)까지는 강연/연수/세미나가 운영되지 않았으며, 2001년과 2002년 2년간 지휘자협회 세미나를 시작으로 (2003, 2007, 2008년 자료없음) 2009년 ‘제주국제관악제,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라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제주국제관악제가 나아가야 할 발전 방안에 대하여 모색하였다. 2010년에는 ‘인성발달을 위한 음악의 역할’이란 주제로 주건성 박사의 초청강연이 운영 되었으며 2011년, 2001년과 2002년에 이어 다시 한 번 한국지휘자협회의 세미나가 운영되었다. 2014년과 2015년에는 폴란드 쇼팽음악원 교수, 아시아·태평양 관악지도자협회 명예회장, 제주도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등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합주지도자를 위한 연수회’를 운영함으로써 우리나라 관악의 발전과 지도자 양성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017년에는 ‘제주관악의 뿌리찾기’라는 주제로 제주국제관악제의 역사를 알아보는 강연이 운영되었다.

〈표 41〉 강연/연수/세미나 중장기 비전 및 목표 & 연도 별 운영여부

중장기 비전 및 목표		해당여부
가. 독창적이며 다채로운 관악축제의 지속적 발전		
나. 관광자원으로서의 지속적인 예술콘텐츠 및 이벤트 창출		
다. 교류와 융합을 통한 예술발전 및 평화의 하모니		
라. 지역과 함께하는 관악의 섬 실현 및 관악의 저변확대		
마. 관악의 전문성과 대중성의 조화와 교육적 역할 증대		○
연도	운영여부	비고
2017	○	‘제주관악의 뿌리찾기’ 초청강연
2016	×	-
2014 ~ 2015	○	합주지도자 연수
2012 ~ 2013	×	-
2011	○	지휘자협회 세미나
2010	○	‘음악의 역할’ 초청강연
2009	○	관악제 발전방안 세미나
2007 ~ 2008	자료없음	-

2004 ~ 2006	×	-
2003	자료없음	-
2002	○	지휘자협회 세미나
2001	○	지휘자협회 세미나
2000	자료없음	-
1995 ~ 1999	×	-

제주국제관악제의 ‘기타’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표 42〉 기타 프로그램 중장기 비전 및 목표 & 연도 별 운영여부

중장기 비전 및 목표		해당여부
가. 독창적이며 다채로운 관악축제의 지속적 발전		
나. 관광자원으로서의 지속적인 예술콘텐츠 및 이벤트 창출		○
다. 교류와 융합을 통한 예술발전 및 평화의 하모니		○
라. 지역과 함께하는 관악의 섬 실현 및 관악의 저변확대		
마. 관악의 전문성과 대중성의 조화와 교육적 역할 증대		
년도	운영여부	프로그램
2017	○	소망마켓(관광상품판매), 축복이벤트(리마인드 웨딩 등, 불꽃놀이)
2016	○	사진전, 프리마켓, 불꽃놀이
2015	○	석고마임 공연
2014	-	자료없음
2013	-	-
2012	-	-
2011	-	-
2010	○	사진전시
2009	-	-
2008	-	자료없음
2007	-	자료없음
2006	○	축제사진 전시
2005	○	제주 춤 연구회 특별공연, 축제사진전시
2004	○	사진공모전, 축제사진전시
2003	-	자료없음
2002	○	전통줄타기 공연, 국방부국악대타악팀 공연

2001	○	우정의 밤, 한국전통택견시범, 재즈댄스 공연
2000	-	자료없음
1999	○	우정의 밤(참가국 민요순례/참가국 연합관악단), 트램폴린 쇼
1998	×	-
1997	×	-
1995	×	-

선정된 17개 프로그램을 제주국제관악제의 중장기 비전 및 목표를 토대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43〉 제주국제관악제 프로그램 중장기 비전 및 목표 분석

중장기 비전 및 목표	
가. 독창적이며 다채로운 관악축제의 지속적 발전	
나. 관광자원으로서의 지속적인 예술콘텐츠 및 이벤트 창출	
다. 교류와 융합을 통한 예술발전 및 평화의 하모니	
라. 지역과 함께하는 관악의 섬 실현 및 관악의 저변확대	
마. 관악의 전문성과 대중성의 조화와 교육적 역할 증대	
프로그램	중장기 비전 및 목표 해당여부
관악단 순회공연	가, 다, 라, 마
전문연주자 초청 연주	가, 마
특별음악회	가, 나, 다, 마
국제 U-13 관악경연대회	다, 라, 마
청소년 관악단의 날	다, 라, 마
동호인 관악단의 날	다, 라, 마
우리동네 관악제	가, 다, 라, 마
밖거리 음악회	가, 라
콩쿠르	가, 나
해녀문화음악회	가, 나, 다, 라
교류연주회	다, 라, 마
마스터클래스	마
마칭/퍼레이드	다
악기전시 및 수리	마
캠프	다, 마

강연/세미나/연수	마
기타	나, 다

지난 22회 동안 운영되어 온 제주국제관악제 프로그램 발전 및 변천과정은 다음장 <표 44>와 같다.



〈표 44〉 제주국제관악제 프로그램 발전 및 변천과정 분석

제주국제관악제 프로그램 발전 및 변천과정 분석																	
	관악단 순회 공연	전문 연주자 연주	특별 음악회	U-13 관악 경연	청소년 관악단 의 날	관악 동호인 의 날	우리 동네 관악제	박거리 음악회	북쿠르	해녀 문화 음악회	교류 연주회	마스터 클래스	마칭/ 퍼레이 드	악기 전시/ 수리	캠프	강연/ 연수/ 세미나	기타
2017	✓	✓	✓	✓	✓	✓	✓	✓	✓	✓	✓	✓	✓	✓		✓	✓
2016	✓	✓	✓	✓		✓	✓		✓		✓	✓	✓	✓			✓
2015	✓	✓	✓	✓		✓	✓		✓		✓	✓	✓	✓	✓	✓	✓
2014	✓	✓	✓	✓			✓		✓				✓	✓			✓
2013	✓	✓	✓	✓		✓	✓		✓				✓	✓	✓		✓
2012	✓	✓	✓	✓			✓		✓				✓	✓			✓
2011	✓	✓	✓	✓		✓	✓						✓	✓	✓	✓	
2010	✓	✓	✓	✓			✓		✓				✓	✓	✓	✓	✓
2009	✓	✓	✓	✓			✓					✓	✓	✓	✓	✓	
2008	✓	✓	✓	✓					✓			✓	✓				
2007	✓	✓	✓	✓		✓							✓	✓	✓		

	관악단 순회 공연	전문 연주자 연주	특별 음악회	U-13 관악 경연	청소년 관악단 의 날	관악 동호인 의 날	우리 동네 관악제	반거리 음악회	콩쿠르	하녀 문화 음악회	교류 연주회	마스터 클래스	마칭/ 퍼레이 드	악기 전시/ 수리	캠프	강연/ 연수/ 세미나	기타
2006	✓	✓	✓	✓					✓				✓	✓			✓
2005	✓	✓	✓	✓	✓	✓							✓	✓	✓		✓
2004	✓	✓	✓	✓					✓				✓	✓			✓
2003	✓	✓	✓	✓									✓				
2002	✓	✓	✓						✓				✓	✓		✓	✓
2001	✓	✓	✓									✓	✓	✓	✓	✓	✓
2000	✓	✓	✓						✓				✓	✓			
1999	✓	✓	✓									✓	✓				✓
1998	✓	✓	✓									✓	✓				
1997	✓	✓	✓									✓	✓				
1995	✓	✓	✓									✓					

제주국제관악제의 중장기 비전 및 목표를 토대로 제주국제관악제 17개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가. 독창적이며 다채로운 관악축제의 지속적 발전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7개, 나. 관광자원으로서의 지속적인 예술콘텐츠 및 이벤트 창출 4개 프로그램, 다. 교류와 융합을 통한 예술발전 및 평화의 하모니 10개 프로그램, 라. 지역과 함께하는 관악의 섬 실현 및 관악의 저변확대 8개 프로그램, 마. 관악의 전문성과 대중성의 조화와 교육적 역할 증대 11개 프로그램으로 분석되었다. 초창기 제주국제관악제는 연주무대가 주를 이루던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작하였지만 22회 동안의 운영기간을 거치면서 메인 프로그램, 연령별 프로그램, 기타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면에서 관악의 저변확대, 교육적 역할, 교류에 비중을 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하며 관악으로 특화된 축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2. 제주국제관악제 관계자 인터뷰(Interview)

본 연구자는 지난 22년간 운영되어 온 제주국제관악제의 프로그램 분석을 통하여 연주와 경연활동 이외에 교육적 기능을 갖춘 프로그램을 살펴 보았다. 1995년부터 운영되어온 제주국제관악제는 1999년을 기점으로 세계적인 전문연주자들 초청을 통한 본격적인 국제화와 프로그램의 다양화, 더불어 관악의 저변 확대 및 교육적 역할의 증대를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자료미비로 진행된 본 연구자의 프로그램 분석에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프로그램 분석의 필요성과 제주국제관악제의 역사, 운영 체계 및 현황, 발전방안과 추후계획, 교육적 역할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관악제 운영기간인 8월 둘째 주 2차 방문에 이어 제3차 방문인 2017년 10월 17일 제주영상미디어센터에 있는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집행위원 관계자 A와 운영총괄 팀장 관계자 B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질문의 내용은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하여 사전에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현장방문 인터뷰를 통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기도 하였지만 인터뷰 종료 후 길어진 인터뷰 분량으로 인하여 문서정리를 통한 메일 발송을 추가적으로 요청하여 답변을 받기도 하였다. 질문의 내용과 답변은 다음과 같으며, 일부 질문에 대한 답변은 관계자 A, B의 공통된 답변이나 한 사람만의 답변이 있었다.

가. 관계자 인터뷰

1) 제주국제관악제의 역사

1) - 1. 제주국제관악제의 역사는 어떻게 되십니까?

관계자 A: “한국관악협회 제주도지부는 1992년 제17회 대한민국관악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시 한국관악협회장은 남궁요열 님 이셨습니다. 16회 때까지는 전국관악제라는 명칭으로 전국 도시를 순회하며 1일 체육관 콘서트로 진행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펼쳐온 제주관악제를 지켜본 남궁회장은 17회 전국관악제의 개최지로 제주를 지목한 것이었습니다.

제17회 대한민국관악제는 두 가지 면에서 획기적이었는데요 첫째, 항공이나 선박을 이용해야하는 제주의 입지적 특성으로 인해 3일간 정식 연주 홀 공연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둘째, 대회명칭이 전국관악제에서 대한민국관악제로 바뀌었습니다. 한국관악협회는 제17회 대한민국관악제를 음악제 형식으로 훌륭히 치른 한국관악협회제주도지부의 역량을 인정하여 1994년 8월, 일본 하마마쓰에서 열리는 제8회 아시아태평양관악제에 한국대표로 제주도의 고교악대가 참가하도록 지명을 했습니다.

역사 이래 처음으로 외국에서 열리는 관악제에 참가한 한국관악협회 제주도지부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주도내고교연합악대를 구성하여 맹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제주고교연합악대는 아시아태평양관악제에서 한라소년합창단과 함께 2회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이 대회에 참가 후 귀향길에 오사카(대판)의 한국거류민단회관에서 제주출신 동포들을 위한 공연을 마련하여 고향을 그리는 재일제주교포들에게 고향의 선율을 선사한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한국관악협회 제주지부는 1996년 제9회 아시아태평양관악제 제주 유치를 추진했으나 남궁 회장의 갑작스런 타계로 인해 추진동력이 약해져 무산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회의 참가는 여러모로 제주 관악인들에게 많은 역량을 축적시켰습니다. 무엇보다 제주의 가치를 객관적 입장에서 느꼈으며 스스로의 역량에 자신감과 희망을 갖게 된 것이었지요. 결국 제주에서 대한민국관악제 개최의 성공과

아시아태평양관악제 참가로 인한 외국에서의 공연 경험이 제주의 가치를 스스로 깨우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격년제로 개최지를 달리하는 아시아태평양관악제 유치에 아쉬움을 남겼으나 오히려 세계의 유명음악제들처럼 관악으로 제주 고유의 국제음악제를 만들어 제주의 문화 예술적 가치를 높이자는 취지로 제주국제관악제를 기획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1) - 2. 제주국제관악제의 준비과정은 어떠하였습니까?

관계자 A: “제주국제관악제를 위한 준비과정은 1994년 제8회 하마마쓰 아시아태평양관악제를 마치고 귀향한 제주관악인들은 제주도청 문화예술 담당자들과 아시아태평양관악제 참가성과간담회에서 제주국제관악제 창설 의지를 적극 표명하였습니다. 이 결과 제주관악인들의 음악적 의지와 제주도 문화예술당국의 세계화 의지가 합쳐져 제주국제관악제를 창설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었지요. 이때 제주관악인들은 관악은 한국전쟁을 전후해 시작되어 50여 년 동안 학교관악대를 중심으로 꾸준하고 활발히 전개된 정통성과 제주도민들에게 가장 가까이 친근하게 다가간 대중성과 기층성(基層性)으로 인해 지역정서에 바탕을 둔 국제예술축제가 가능하리라는 믿음을 갖고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하마마쓰의 국제경험에 비추어 야외공연이 어울리는 관악의 매력과 제주의 여름자연경관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 자신감을 더욱 높여주었습니다.

1994년 7월 말 일본 하마마쓰에서 돌아온 직후부터 1996년 아시아태평양관악제유치 무산을 오히려 자극제로 삼아 바로 1995년 격년제의 제주국제관악제 창설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르는 예산은 전무한 형편이었으나 하마마쓰 아시아태평양관악제 참가를 위해 머리를 맞대오던 제주도문화당국 관계자들과의 의기투합은 제주국제관악제 탄생을 위한 축복처럼 가장 큰 자산이었습니다.”

2) 운영

2) - 1. 지난 22회 동안 제주국제관악제를 준비하시면서 어떠한 어려운

점이 있으셨습니까?

관계자 A: “의욕만 앞세운 제주국제관악제 준비는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첫번째로 **예산마련**이었습니다. 제주도문화당국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전화기 겸용 팩스와 컴퓨터 1대로 시작한 업무는 관악제를 불과 일주일 남긴 시점에도 절대액수가 부족하여 가슴을 조아렸어요. 참가조건은 외국관악단의 경우 축제참가 기간동안 숙식과 차량지원, 국내관악단인 경우 차량지원이었습니다. 경비 절약의 묘수로 당시 행정기관의 출퇴근용 버스를 관악제 기간 동안 참가단체를 수송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받았고, 제주도 지원금 외에 제주은행, 한국이동통신제주지사, 한국토지공사 제주지사 등에서 후원이 이루어 졌습니다.

둘째, **외국단체와 소통의 어려움**입니다. 상근직원 1명 없이 핵심주체들이 퇴근 후 혹은 휴일 근무로 추진하는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외국단체와의 소통인데 당시 중고교음악교사, 제주시립교향악단원인 핵심주체들은 그들의 동료 외국어교사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셋째, **야외공연장 선정**에 따른 어려움이었습니다. 여름밤, 상징적으로 제주 전역을 관악의 선율로 채우려는 의도는 제주시는 제주해변공연장, 서귀포시는 천지연폭포지역으로 정했습니다. 1994년도에 신축한 제주해변공연장은 문제가 없었으나 서귀포 천지연폭포야외공연장은 절벽과 숲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경관과 음향효과가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공연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서귀포시의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무대, 음향, 조명 등 모든 시설물은 행사 종료 후 원상 복구하겠다는 설명을 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7월 말에 단행된 공무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입 관리소장의 해안으로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는 안전요원 배치 등 주의하여 관리한다면 문화재 훼손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 결과 누구나 감탄해마지않는 폭포와 절벽, 숲이 어우러진 최고의 야외공연장이 탄생되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당시 서귀포시 당국은 천지연폭포를 야간개방관광지로 개발하여 서귀포의 낭만을 더욱 높이는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2) - 2. 제주국제관악제 자료들을 살펴본 바로는 예산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관계자 B: “운영총괄팀장으로서 가장 큰 어려움이라 생각하는 부분은 **불안정한 사무국**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관악제와 콩쿠르는 큰 범위에서 지속적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세부 운영에 대해서는 미흡한 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는 **안정된 사무국이 오래도록 이어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이 가장 큰 이유일 듯합니다. 그것은 조직위원회의 예산 재원이 대부분 사업비로 이루어져 안정된 사무국 운영비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체적 노력을 시도하였지만, 일회성에 그치는 등 지속적으로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국 자체의 규모가 작아 관악제와 콩쿠르 운영 준비 및 정산만으로도 많은 업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순환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고있는 관악제와 콩쿠르의 약점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무국 운영팀의 전문 조직화가 되어 있지 않아**, 몇 사람에 의존하는 사무국 운영이 진행됩니다. 이에 몇 사람에게 일이 과중되고,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안정화에 대한 논의는 15년 전부터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무국 안정화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예술단체가 어렵게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어렵게 사무국을 유지해온 이유는 관악제와 콩쿠르의 확대를 위한 면에 치우쳐서 운영비 부분에는 많은 신경을 쓰지 못했던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2) - 3. 지난 22회 동안 제주국제관악제를 운영하시면서 보람된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관계자 A: “2000년도 시작한 제주국제관악콩쿠르가 세 번의 도전 끝에 2009년에 유네스코 산하기구 국제음악콩쿠르세계연맹(WFIMC)에 가입된 일, 제주국제관악제의 여세를 몰아 2004년, 2014년에 아시아태평양관악제, 2006년에 세계마칭밴드챔피언십제주대회를 개최 등은 기억할 만한 일들입니다. 이제 2018년 중,고교의 점인정 일부 음악교과서에 국내 유명음악

축제 중 제주국제관악제가 소개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관악의 섬>으로 제주도가 국내 학생들에게 각인될 것이라는 즐거운 상상을 해봅니다.”

관계자 B: “모든 일이 마찬가지겠지만 행사, 축제는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렵고 사람들안에서 보람되는 일인 듯합니다.”

3) 관악축제의 형태 및 특징

3) - 1. 관악축제의 형태로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관계자 A, B 공통의견: “관악축제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 컨벤션 형으로 회의와 공연이 동시에 열립니다. 아시아태평양관악지도자협회(APBDA), 세계심포닉밴드양상블협회(WASBE)의 총회가 격년제로 개최지를 달리하여 열립니다. 개최지의 사정과 노하우의 축적여부에 따라 부침이 심합니다. 둘째, 페스티벌 형으로 개최지가 고정된 대만 치아이, 중국 베이징, 일본 하마마쓰관악제 등 입니다. 비교적 개최기간이 짧고 학교관악대의 공연이 주류를 이룹니다.”

3) - 2. 제주국제관악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관계자 A: “컨벤션 형과 페스티벌 형이 아닌, 제주는 제3의 형태, 관악축제와 관악콩쿠르가 두 개의 축을 이루어 관악의 대중성과 전문성을 추구하며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관계자 B: “세계의 유명 음악제는 대부분 오케스트라와 오페라 축제가 주류를 이룹니다. 사실 관악은 그 자체의 화려함과 기동성으로 인해 여러 축제의 감초역할을 이미 해왔기 때문에 관악만의 축제는 흔치 않았으리라

여겨집니다.”

4) 계획

4) - 1. 제주국제관악제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관계자 A: “제주국제관악제 겨울시즌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주국제관악제는 점차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개최시기가 관광성수기인 여름시즌에 집중됨으로써 프로그램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발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겨울시즌 개최 목적은 관악의 전문성과 기능적 발전을 위한 **아카데미 기능을 보강**하여 음악적 생산성 제고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학생, 음악인들에게 양질의 기능습득 기회 및 발표, 교류기회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주국제관악제 상설운영체제를 통해 축제 개최시기를 분산하고 겨울시즌 제주의 새로운 문화예술축제로 정착하고자 합니다.

관계자 B: “예를 들어 이번 관악제에서 처음으로 시도 된 관악과 해녀문화를 융합한 해녀음악회처럼 관악 연주와 제주문화 그리고 제주 유·무형자원을 융합한 프로그램 개발, 관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전문 관악단체와 학교 및 동호인 관악단체의 교류증대, 제주의 정서가 깃든 관악작품 발표로 관악작품의 생산성 증대 등의 다양한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관악 아카데미 기능 강화를 통한 대학관악단과 초등학교 관악단의 교육교류, 국제 관악캠프 개최, 관악 캠프 기능을 확대하여 국제 관악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 - 2. 아카데미 기능 강화를 통한 관악 캠프를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있으십니까?

관계자 A, B 공통의견: “운영방침으로는 해마다 1월 2,3주 중으로 목관, 금관, 타악기 부문에서 해마다 10여 개 종목 내에서 순환 개최를 하고 악

기별 강사진은 저명한 전문가로 국내외 각1-2명으로 제한합니다. 캠프참가자는 국적, 연령, 직업 등의 제한을 두지않으며, 초청강사, 캠프참가자 등이 참여하는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에게 위촉한 한국, 제주민요를 품은 창작곡을 발표하고 제주도내 관악단의 발표무대를 마련하려 합니다.”

5) 국내외 음악제 사례

5) 운영하시는 동안 외국 페스티벌의 사례를 참고하셨다면 어떠한 사례를 참고하셨고 이를 제주국제관악제에 적용하셨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으신가요?

관계자 A: “외국의 페스티벌을 참고하여 적용하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주국제관악제는 관악축제와 함께 8개 부문의 국제관악콩쿠르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축제와 경연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상호 시너지효과를 올리는 독특한 형태로 정착되었습니다.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는 2000년부터 모두 5차례 정도 관계자들을 파견하여 북미지역에 제주국제관악제를 홍보하였습니다.”

관계자 B: “외국 페스티벌의 사례보다는 제주의 전통문화를 어떻게 관악제와 콩쿠르에 녹여낼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사례로 2017년 관악제에서 처음 선보인 ‘밖거리 음악회’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밖거리는 제주의 주거문화인 ‘안거리, 밖거리’에서 차용해 온 용어로, 안거리에는 부모님 가족, 밖거리에는 자식 가족이 한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주거방식입니다. 평소에는 자녀 가족의 생활을 존중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경우 함께 해결해나가며 삶을 지속해온 제주 선조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러한 선조들의 생활방식을 관악 프로그램에 도입하였습니다.”

6)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6) - 1. 제주국제관악제를 22회 동안 운영하시면서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더불어 교육적인 활동이 많아지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다양화와 교육적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기는 어떻게 되십니까?

관계자 A: “관악선진국인 미국, 일본, 대만, 중국 등은 학교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관악대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협동심, 책임감,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을 키울 수 있는 **인성교육차원**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의 음악적 능력과 교육열은 뛰어나 근래에 피아노, 성악, 현악 분야의 세계적 콩쿠르에서 많은 입상자를 배출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관악분야는 부족함이 많은데 결국 학교에서의 **관악교육 부재가 원인**이 됩니다.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는 개인적인 음악교육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지역별 청소년들을 위한 합주교육인 것입니다. 흔히들 가장 바람직한 사회형태를 훌륭한 오케스트라의 조화로움에 비유합니다. 우리나라의 균형적인 음악발전을 위해서나 조화로움 속에서 자신을 구현하는 국민정서의 훈련을 위해서 합주교육은 최상의 교육활동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초, 중, 고교에서 누구나 관심만 있으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마다 교육활동 그 자체로 관악합주활동을 권장해야 합니다.

관계자 B: “관람객 만족도 설문조사 시 관람 방문의 목적이 ‘**교육적 목적**’ (초중고 학생들의 공연관람, 체험 등)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6) - 2. 제주국제관악제는 현재 운영되어지고 있는 교육활동 프로그램으로 교육적으로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혹시 교육활동 중 미흡했던 부분이 있으십니까?

관계자 A: “아직 미흡한 부분은 관악활동의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교육

적 **목표 추구**입니다. 그동안 제주국제관악제 초창기부터 교육활동에 관심을 두어 초청관악인들의 악기별 워크숍, 일선 관악지도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합주지도를 위한 강습회 등을 꾸준히 진행해 왔으나 축제와 경연 진행에 따른 부담으로 집중력이 부족했습니다.”

관계자 B: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류연주회의 형태는 (가) 학교의 연주, (나) 학교의 연주, (가)와 (나) 학교의 합동연주, 교류패 전달, 교류 간담회, 학생만남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체 간의 직접적 교류 극대화를 꾀하기 위해 **교류연주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초-초, 고-고 등)교류 연주회의 횟수 증대와 재능기부 교류연주의 확대를 기획하였습니다. 하지만,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 교류연주회 횟수는 증대하였으나, 재능기부 교류연주의 **세부적 운영은 다음해로 미루었습니다.**”

6) - 3. **교육활동 프로그램의 보완점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계자 A, B 공통의견: “앞으로 교류연주회를 진행함에 있어 교류형태의 다양성(1박 2일간의 연주 교류 등), 교류 단체의 사전 매칭 환경개선을 통한 새로운 프로그램의 창출 및 다양한 소통 속에서 다양한 교류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단순한 교류의 목적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문화향유에 이바지 하는 교류연주회를 위한 보완점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욱 큰 바람으로는 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내 **교육팀 신설**을 통해 교류연주회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마련과 운영을 통해 질 높은 관악제와 콩쿠르가 되기를 바랍니다.”

6) - 4. **교육적 활동에 대한 앞으로의 발전 방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관계자 A, B 공통의견: “제주국제관악제는 국제 U-13 관악경연대회, 청소년 관악단의 날 등을 통해 학교관악활동을 통해 성취감, 외국과의 교류 등

을 이루도록 하여 학교관악활동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6) - 5. 운영되는 프로그램 이외에도 교육적 역할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점이 있으시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으신가요?

관계자 A: “2005년에 제주서중학교, 화북초등학교에 35인조 관악대 조직을 위해 악기 일체를 기증했는데 이는 2006년에 예정된 세계마칭밴드챔피언십 제주대회에 즈음하여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관악대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작곡가에게 **제주도민요에 바탕을 둔 관악곡을 위촉하여 꾸준히 관악작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주국제관악제 국제 U-13 관악경연대회 지정곡으로 국내 중견 작곡가들에게 위촉하여 2015년 강철호 작곡 <서우제소리>, 2016년 이문석 작곡<Kids Song>, 2017년 박성균 작곡 <해녀> 등을 보급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초등학교 관악단원들의 무대경험을 쌓기위해 월1회 <꿈동산 음악회>를 문예회관소극장에서 6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관계자 B: “지금까지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는 국내 관악단의 체계적인 합주능력을 키우기 위해 **관악합주용 연습곡집** 세권을 번역하여 출판하였고 이를 국내 **초,중,고교관악대에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안익태 작곡 한국환상곡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관악곡으로 편곡하여, 표준관악본으로 안익태기념재단의 재가를 받아 출판하였으며 이를 국내 대학관악단, 군악대 등에 보급하였습니다. 미국의 관악작곡가 <알프레드 리드(Alfred Reed)의 생애와 작품(더글러스 M. 조던 지음)>을 번역출판 하였습니다

나. 인터뷰 결과 분석

2017년 10월 17일 제3차 방문을 통한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관계자 A, B와의 인터뷰 결과 분석은 다음과 같다.

1) 제주국제관악제의 역사

1992년 제17회 대한민국관악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1994년 제8회 아시아·태평양관악제 제주고교연합악대의 참가로 인한 외국에서의 공연 경험은 제주의 가치를 깨우치는 계기가 되었고 관악으로 고유의 국제음악제를 만들어 제주의 문화 예술적 가치를 높이자는 취지로 기획하게 되었다. 이 후 제주관악인과 제주도 문화예술 담당자들의 아시아·태평양관악제 참가성과간담회에서 제주국제관악제 창설 의지를 적극 표명하며 이들의 세계화 의지가 제주국제관악제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2) 운영

제주국제관악제는 초창기 준비과정에 있어서 예산부족, 외국단체와 소통의 문제, 야외공연장 선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 외국단체와의 소통, 야외공연장 선정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예산부족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운영에 있어서 예산부족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며, 충분한 사무국 운영비를 확보할 수 없는 불안정한 사무국의 현황이 전문 조직화 미흡, 세부 운영, 업무과중 등의 문제점을 파생시키며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우여곡절 속에서도 제주국제관악제는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며 유네스코 산하기구 국제음악콩쿠르세계연맹(WFIMC) 가입, 아시아태평양관악제(2004년, 2014년)와 세계마칭밴드챔피언대회(2006년)를 공동개최하는 성과를 얻은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3) 관악축제의 형태 및 특징

관악축제는 회의와 공연이 동시에 운영되는 컨벤션형 관악축제와 개최지가 고정으로 운영되는 페스티벌 형 관악축제로 분류할 수 있다. 제주국제관악제는 앞서 언급된 컨벤션형과 페스티벌 형의 관악축제가 아닌 관악축제(대중성)와 관악콩쿠르(전문성)를 두루 갖춘 독자적 형태로 볼 수 있다.

4) 계획

제주국제관악제는 관악 연주와 제주문화 그리고 제주 유·무형자원을 융합한 프로그램 개발, 관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참가단체들 간의 교류 증대, 제주의 문화를 기반으로 한 창작 관악작품 발표 등의 다양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 프로그램의 점진적 발전과정 속에서 발생한 프로그램 포화상태 문제를 겨울시즌 개최로 해결하려한다. 1월 2, 3주 중 운영 될 관악캠프는 아마추어와 전공자 모두에게 양질의 기능 습득 기회 및 발표, 교류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더 나아가 관악캠프 기능을 확대하여 국제 관악학교 설립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5) 국내외 음악제 사례

지난 22회 동안 제주국제관악제의 발전과정 속에서 국외의 페스티벌의 사례를 적용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점으로 인한 질문이었으나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의 답변은 예상 외의 답변이었다. 제주국제관악제는 축제와 경연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지난 22회 동안 발전되어 온 독특한 형태의 관악제로써 제주의 문화와 관악의 융합을 통한 다양한 문화향수권을 제공하고 있다. 제주국제관악제는 국외 페스티벌의 사례를 참고하여 적용하긴 보다는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차별화 된 관악축제를 운영하며 국외에 제주국제관악제를 홍보하고 있다.

6) 프로그램 운영

지난 22회 동안 운영되어 온 제주국제관악제는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더불어 교육활동 부분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다.

제주국제관악제는 관람객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관람 방문의 목적이 ‘교육적 목적’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는 관악선진국의 사례를 제시하며 관악활동이 협동심, 책임감,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을 키울 수 있는 인성교육에 적합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과 함께 피아노나 성악, 현악 분야에 비하여 관악분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원인을 학교에서의 관악교육 부재로 판단하고 있다. 제주국제관악제는 이와 같은 문제점과 우리나라의 균형적인 음악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적 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주국제관악제는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육적으로도 많은 기여

를 하고 있지만 운영 인력부족과 관악제 운영 진행 부담에 따른 세부적인 운영이 미흡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현재 운영되어지고 있는 국제 U-13 관악경연대회, 청소년 관악단의 날 등 교육활동 프로그램에 대하여 교류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류 형태, 국제관악제 교육 팀 신설 등을 구상하며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 이외에도 교육적 역할 증대를 위한 악기 기증, 제주도 민요를 바탕으로 한 관악작품 위촉, 관악곡과 합주교본 발간 및 보급 등으로 학교관악활동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IV. 결론 및 제언

1. 논의

1995년부터 지난 22회 동안 운영되어 온 제주국제관악제는 야외연주가 용이한 관악의 특성과 제주가 갖고 있는 평화의 이미지 그리고 여름의 낭만이 조화를 이룬 여름 음악축제이다. 또한, 관악만을 활용한 축제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국내 관악제 및 음악제와는 차별화된 음악제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관악교육은 고교입시와 대학입시교육 강화로 인하여 학교 관악단이 하나 둘씩 자취를 감추며 사라지고 있다. 관악 선진국들이라 할 수 있는 다른 나라들의 관악밴드 수(학교, 전문 관악연주단체, 군, 경찰 등)를 살펴보면 대만 2천, 일본 1만 7천, 미국 3만 등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4백여 개에 불과하여 관악의 저변확대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관악교육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제주국제관악제는 콩쿠르와 국제 U-13 관악단 경연대회, 청소년 관악단의 날, 동호인 관악단의 날 등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며 관악에 대한 이해와 관심과 흥미를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관악관련 서적, 합주교본, 악보 등의 출판물 통해 관악 활동을 증진시키고 있다. 또한, 전문연주자와 일반인들 간의 예술교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예술문화 수준 향상과 더불어 예술활동 활성화 및 관악의 저변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악의 전문성과 대중성을 함께 추구하는 제주국제관악제는 지난 22년간의 성장과정을 거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음악축제로 자리 잡으며 관악분야의 세계적인 축제로 인정받고 있으나 본 연구를 진행하면

서 발견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제주국제관악제는 지난 22회 동안 참가 음악인, 연주단체의 규모,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더불어 질적인 면에서 내실 있는 성장을 거듭해오고 있으나, 프로그램 분석을 통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찾아볼 수 있었다.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관악캠프나 연수, 강연과 같은 교육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지속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조직위원회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파악해 본 결과 축제를 운영하는데 있어 제주도립교향악단과 서귀포관악단의 관악 단원들이 제주국제관악제 운영인력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도 제주국제관악제 연주자로도 활동하고 있기에 현재 운영되어 지고 있는 프로그램 이외에 추가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제주국제관악제 연구를 위한 자료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제주국제관악제에 대한 자료수집을 실시하였으나 홈페이지 관리 부실 및 조직위원회 사무국 자료정리 미흡으로 인하여 조금 더 정확하고 깊이있는 연구가 어려웠다. 본 연구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제주국제관악제에 대한 소수의 연구만 이루어졌기에 다양한 방면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자료미흡으로 인하여 연구에 대한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또한, 앞서 나타난 프로그램 지속성 및 일관성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사무국의 운영인력 부족으로 인한 자료관리 부실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셋째, 홍보 부문에 있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자가 현장조사를

위하여 2017년 8월 8일 ~ 8월 16일까지 9일의 기간동안 실외공연장과 실내공연장에서 이루어진 음악공연 관람을 통하여 살펴 본 결과 실내공연장에서 이루어진 공연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객석 점유율을 보였다. 여름철 특성으로 인하여 관람객들이 실내공연장 보다는 실외공연장을 찾는 경향이 높다는 점과 제주국제관악제 자료를 통하여 작년에 비하여 좀 더 나은 객석 점유율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대규모 공연장의 좌석을 관객으로 채우기에는 아직도 미흡하다는 점을 나타냈다. 콩쿠르의 경우, 국제음악콩쿠르세계연맹(WFIMC)에 가입되어 있어 해외참가자의 비중이 높지만 아직까지는 일본, 중국, 대만 등 아시아권 비중이 높다. 관악 선진국인 유럽과 북미 지역 등 다양한 나라의 참가자 유도가 필요하다.

앞서 살펴 본 제주국제관악제의 다양한 문제점들의 공통점은 예산 부족 문제로 인한 사무국의 불안정한 운영으로 볼 수 있다.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2017년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보조금 지원 외에 공연예술전문인력사업, 지역대표공연예술제, 문화예술연수단원지원사업의 공모 선정 및 제주도내 주요단체의 후원으로 전체 예산이 지난해보다 증액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증액된 예산으로 운영환경 개선 및 인력 확보, 보상금 증액, 홍보 등을 일부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한다. 지속적인 제주국제관악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예산부족 문제 해결을 통한 사무국의 안정화가 필수적이다. 사무국의 안정화를 통한 인력 증대로 공연운영, 홍보업무, 홈페이지 관리 및 자료업무 등을 담당할 전문화된 운영 인력 편성을 필요로 한다.

2. 정리 및 제언

기악활동은 창의·인성교육을 목표로 하는 음악교과에서 중요한 교육활동이다. 외국에서는 기악활동의 가치와 중요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고 지속적인 악기 수련을 통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음악을 즐기고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국내에서도 교육부의 다양한 문화예술정책 중 하나인 기악활동을 권장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악교육 형태를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피아노와 현악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악영역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관악영역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음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관악활동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관악이라는 특정 장르를 활용하여 운영되어지고 있는 제주국제관악제를 살펴봄으로써 제주국제관악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활동과 관악발전을 위한 교육적 역할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제주국제관악제의 프로그램 분석과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995년부터 운영되어 온 제주국제관악제는 초창기 연주무대가 주를 이루던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22회 동안의 프로그램 분석을 통하여 교육적 의도를 가진 프로그램들이 언제부터 운영되어 왔는지 구체적인 파악은 어렵지만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며 교육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어 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제주국제관악제의 중장기 비전 및 목표 중 <교류와 융합을 통한 예술발전>, <관악의 저변확대>, <전문성과 대중성 보급을 통한

교육적 역할증대> 이 세가지 비전은 교육적 요소를 지닌 비전으로 앞으로 제주국제관악제의 교육활동에 대한 방향성과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서도 자체평가회, 포럼 등을 통하여 나름대로 교육적 의도를 지닌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주국제관악제는 참가 단체들간의 교류시간을 따로 마련하여 교류를 통한 자연스러운 정보제공과 문화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평소 문화행사가 많지 않은 소외지역에 대한 공연기회 확대와 국제 U-13 관악경연대회, 청소년관악단의 날 등을 통해 교육현장에서의 음악 활동을 장려하고 인성교육에 바탕을 둔 각종 긍정적인 효과를 증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 동호인들에게도 공연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긍심 고취와 생활 속의 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제주국제관악제는 교육적 의도를 지닌 프로그램 운영 이외에도 제주의 정서를 품은 관악 창작곡을 지속적으로 생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데 일조하고 있으며, 학교 관악단의 활성화를 위해 악기기증, 악보 무상보급 등으로 관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주국제관악제는 그다지 풍족하지 않은 예산과 인적자원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비를 넘기면서 22년 동안 지속되었다. 그 이면에는 예산의 적절한 안배와 집행, 그리고 지금까지도 버텨오는 많은 관악인들의 자부심 넘치는 봉사활동으로 지탱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제주국제관악제 프로그램 분석을 통하여 제주국제관악제가 지니고 있는 교육적 가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주국제관악제 자체적으로 교육적 요소를 갖춘 프로그램 개발에 대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지만 중등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제주국제관악제 활용 방안이
나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된다면 제주국제관악제
의 발전과 관악의 저변 확대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IV. 참고문헌

【단행본】

- 김철원, 이석호(2002). **문화관광축제 육성방안**. 한국관광연구원.
- 박봉선(1988). **관현악의 이론과 실제**.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p. 294.
- 박이옥(1991). **마칭밴드교본**. 부산: 해광. p. 27.
- 삼호출판사 편집국(1994). **음악용어사전**. 서울: 삼호출판사. p. 358.
- 석문주, 최은식, 함희주, 권덕원(2006). **음악교육의 이해와 실천**.
서울: 교육과학사. p. 170.
- 이홍수(1994).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세광음악출판사. p. 85.
-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2011). **공명**.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p. 32.
- 제주도지 편집 위원회(1982). **제주도지(상)**. 제주도. p. 411.
- 제주특별자치도(2008). **제주문화예술 60년사**. 제주문화예술재단.
- J. L. Mursell(1993). **음악교육과 인간형성**. 서울: 삼호출판사. p. 41.

【학술논문】

- 김태관(2013). 제주지역 음악축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콘텐츠 육성 방안.
제주학회.
- 윤동진, 김정희(2016). 제주국제관악제의 성공요인과 과제. **탐라문화**,
51(1).
- 장은언(2008). 독일 루르지방의 기악교육 장려 프로젝트의 학문적·교육
적 의미. **음악교육연구**, Vol. 34, p. 133.

현경실(1997). 초등학교 기악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초등교육연구논총, Vol. 10. p. 208.

Gitelson, R., Kerstetter, D. & Kiernan, N. E.(1995). Evaluating The Educational Objectives of a Short-Term Event, *Festival Management & Event Tourism*, 3, 9-14.

Hustedde, R. J.(1993). Community Festivals Can Educate, *Journal of Extension*, 31(2).

【학위논문】

권홍근(2011). 효과적인 초등학생 관악합주 개발활동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창의성 및 사회성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기래(2003). 고등학교 관악대의 현황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용환(2006). 광주·전남 초등학교 관악합주 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현정(2010). 가사 탐구를 통한 가창 표현력 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 초등학교 가창 수업 중심으로.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용식(2003). 관악부 학생의 합주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연구: 고등학교 관악부를 대상으로.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발표자료】

김성호(2009). 제주국제관악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연구.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p.20.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2014). 제주국제관악제 발전을 위한 포럼.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2015). 제주국제관악제 평가 및 포럼.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2016). 제주국제관악제 발전을 위한 포럼.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2017). 제주국제관악제 자체평가회.
제주시(2004). 제주국제관악제가 제주에 미치는 문화·예술·사회적 환경
에 대한 연구.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p.3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2009). 제주국제관악제 발전을
위한 포럼 섬, 그 바람의 울림! 오늘과 내일.

【기타자료】

부만근(1982). 광복제주 30년. 서울(설문조사). p. 329.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1995). 1995 제주국제관악제 프로그램
모음집.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1997). 1997 제주국제관악제 프로그램
리플렛.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1998). 1998 제주국제양상블축제 및 제주국제
관악제 프로그램 모음집.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1999). 1999 제주국제관악제 프로그램
리플렛.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2001). 2001 제주국제관악제 프로그램
모음집.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2002). 2002 제주국제관악제 양상블축제
프로그램 모음집.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2004). 2004 제주국제관악제 양상블축제
프로그램 모음집.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2004). 제13회 아시아·태평양관악제

프로그램 모음집.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2005). 2005 제주국제관악제 프로그램
리플렛.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2006). 2006 제주국제관악제 앙상블축제
프로그램 모음집.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2009). 2009 제주국제관악제 프로그램
모음집.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2010). 2010 제주국제관악제 앙상블축제 • 제6
회 국제관악콩쿠르 프로그램 모음집.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2011). 2011 제주국제관악제 프로그램
모음집.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2012). 제주국제관악제 자료모음 1995-2011.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2012). 2012 제주국제관악제 프로그램
모음집.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2013). 2013 제주국제관악제 프로그램
모음집.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2014). 2014 제주국제관악제 • 제9회 제주국제
관악 및 타악기 콩쿠르 • 제18회 아시아태평양 관악제 프로그램
리플렛.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2015). 2015 제주국제관악제 • 제10회 제주국
제관악콩쿠르 프로그램 리플렛.

<http://www.jiwef.org/>

ABSTRACT

A Study on Educational Value through the Analysis of Current Situation of the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Hwang, Chan hwi

Major in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won, Sumi (D.M.A. & Ed. D.)

Although the history of Korean wind music education is short, the big and small wind music music is being opened in our country because of utilizing the advantages of wind music performance and wind music education. These music festivals can be regarded as music festivals that are still ahead of the purpose of concerts and contests. Among them, the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has been operating with various programs for the last 22 years with its largest scale and history. I have searched how many studies on educational functions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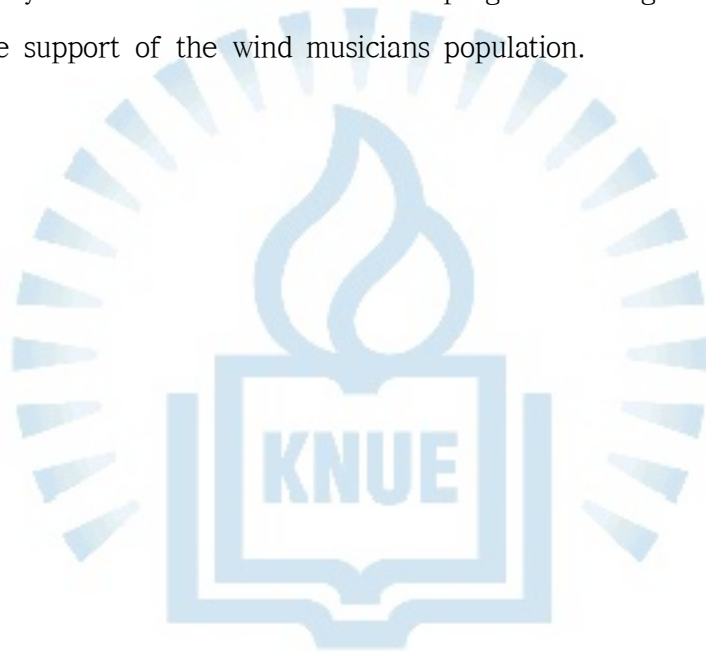
various programs of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have been conducted. However, this study was started because it is considered that the study of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is necessary from the viewpoint of educational situation.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past 22 years' programs based on the mid - to long - term vision and goals presented at the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Enforcement Agency's self-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educational value of the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through interviews with the organizers of the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e research, data collection, program analysis, actual program observation and interviews were conducted through three visits from November 2016 to October 2017.

First, we will be holding interviews with the members of the Organizing Committee and participating in the forum on November 25, 2016 in order to investigate the history and growth process of the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The collection of current programs, leaflets, documents, The program has been running since 1995 for 22 years. Second, we conducted a field survey on the programs that were actually operated through the 22nd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held throughout Jeju Island for 9 days from August 8 to 16, 2017. Third, after analyzing the program of the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I visited the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Office in

Jeju Media Center on October 17, 2017 and shared opinions based on the program analysis table surveyed by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We conducted qualitative research through interviews on the history, operation, future plans, and programs of the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rogram for the last 22 years, the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which has been in operation since 1995, has begun with the program which was the main stage of the early performance, and the programs with educational intention gradually expanded. It is difficult to know exactly when the programs with educational intentions have been operated. However, through the ongoing forum since 2014, the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is going to be the first one to continue the development of wind music festival, second, to develop artistic content as a tourism resource, Art development, 4th, expansion of foundation of wind music, 5th, increase of educational role through professionalism and popularization has been operating with 5 mid to long term vision and goals. Among these, the third vision is to develop the arts through exchange and fusion, the fourth, the expansion of the foundation of the wind music, and the fifth, the educational role to increase through professionalism and popularization. The program of the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which has been operated intermittently, shows the way to maintain sustainability in recent years. The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encourages natural

information provision and cultural exchanges through the provision of exchange time between participating groups. It also aims to expand opportunities for performing in cultural marginalized areas, and to encourage high school students, And provides an opportunity to continue to promote art activities in life and life. In order to continue the education program of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he education program through the interest and active support of the wind musicians population.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February, 2018.